

보살세외오니보살왈스승을보호치아니코엇지한가히단나노오공이고왈스승이
 관음원제가혹풍동요피의게가스를일헛스니보살님이인간향화를받드며엇지이런
 요피놈을길너사오나은일을시기니엇진도리노만일차즈주지아니할면보살님도또
 혼갓다흔디보살왈이몹슬잔남아엇지이런말을한단다곰의게가스를일허든니아
 랑곳하라네엇지날다려말한단다네담큰체하고중놈의게가스자랑한다가일코또홍
 혼마음을니여그런절을다티와니향화받난곳을업시하고와도로혀날다려말한단다
 행즈왈보살이슴천디천제계를당중의보육갓치보시난줄알고마음에겁니여황망이
 전디아리셔절하며사죄하여살외되보살님은제조의광망흔죄를스하시고우리스승
 님낫을보와가스를쳐주소서과연그요피가사를아니주며왈관음밧게두려울이
 업서라하오니보살님을청하러왔나이다보살왈그요피신훈이거룩하여너는잡지못
 할거시니니가셔잡아주리라하고행즈를다리고구름라고혹풍산으로오니한로인이
 파려반에두낫금단을담아들고가가날행즈니다라쇠막디로디골을쳐쳐죽이고시선
 을쓰어니여보니프른일희어날그가저가든유리반을보니삭엿스되능허재라하엿거
 날행즈왈그요피놈을잡을묘척이잇스니간과를움작이지안야그요피를잡으리이
 다보살이소왈잔스흔잔남이또무삼씩을니고저하는다네하즈하는디로할거시니씩
 를일으라행즈왈그요피유리반에능허저라삭엿스니일정도인의별흔가시부니그반
 에금단두낫을담앗스니선물한는거시니보살님은변하여능허저에엿골이되고로손

은금단하나홀먹고큰금단이되여든보살님은유리반을들고가요피를주어로손으로
 된금단을먹이면로손이비속에드러가작란한면차질가하는이다보살왈네하민망하
 여하니네일은디로하즈하고변하여능허저되여학창의를입고바람을붓쳐섯스니
 행즈경망히압흐로나아가락뒤흐로나아가락하며진짓보살인가거짓요관가々장분
 변키어렵도다하고즉시변하여금단이되여유리반을들고혹풍동으로가니자근요피
 반겨왈능허저오신다하거날금히드러가고하니검은요피즉시나와마즈드러가죄정
 하미방초파에서행즈의게육먹든말을일으거날보살이황망이유리반을드러요피압
 히노며왈소인이정성으로선가보비를어더왔스니티왕은자시고만슈무강호소서검
 은요피소양왈귀흔거시니는화먹스이다하거날보살이정금단을먼저먹고행즈로된
 금단을요피의게보이니그요피보살처럼덤뎌삼키니행즈드러가염통잔을잡아흔
 들며발노창즈를짓발부며작란하니그요피견디지못하여싸히것구러져구을며살거
 지라빌거날보살이그제야본상을니여도적하여온가스를드리라하니그요피보살
 인줄알고즉시웨여왈부처님보비를드리사이다하거날보살왈빨니니여오라하니
 그요피즈근요피를분부하여금란가스를내여와드리거늘보살이밧고또변을지을가
 하여금수파하나홀스리로서니여그요피의머리의씨우고행즈를불너나오라하니행
 즈그요피코궁그로뛰어나니과연보살세는하슈치못하고님떠나며창을들고행즈의
 게다라드러질으려하거늘행즈금자방을니여마즈쓰호더니보살이공중에뛰어올나

진언을 염하니 금슈파머리에 박히는 지라 그 요괴머리를 부티이고 압푸를 견디지 못하
 며 싸흘 두다리고 쇼리를 질녀 살거지라 발거늘 행조쇠막디를 들어 치며 즉각 죽어
 려하거늘 보살이 말녀 왈 오공은 손을 움작이지 말나 이놈을 살녀 쏘디잇 노라 행조왈
 보살님은 이 몸을 놔들이 디 쓰려하시나 잇고 보살왈 락가 산뒤히 산신이 업스니 다려다
 가 산신을 삼으려하노라 행조왈 그러하면 이놈을 금슈파를 써워 두고 성심도 다시 요란
 치 못하게 하쇼셔 보살이 우으며 진언을 염하니 그 요괴 항복하거늘 관음머리 삭가경
 계하 여다리고 구름타고 락가 신으로 가거늘 행조 절하 여스레하고 후풍동에 드러가
 려잔 요괴를 다 짓조르고 가스를 엿기 에 걸고 관음원으로 도라오니 삼장이 행조의 디
 음을 보고의 심하 여해 오디 보살을 청하러 가는 체하고 다라 가는가 하더니 행조 문득 구름
 속으로 내려와 쓰러왈 스승님이 가스를 제야 차저 왔나이다 삼장도 깃거하며 제승
 도 깃거져 마다 일오디이 제야 우리 성명을 보전케하나이다 하더니 삼장이 가스를 엿기
 에 걸고 오공다려왈 네그리 일죽가더니 엿지디 오노 행조 왈 로손이 남히 락가 산에 가
 관음보살을 청하 여변화하 여요괴 잡든 일을 자세이 느니 승장이 향안을 배설하고 남
 히로 향하 여스레 후행조다려왈이 제야 가스를 차저스니 행리를 초려 길을 가조하
 행조 왈 스승님은 밤바마쇼셔 오늘 임의 느젼스니 니 일일 직가스이다 제승이 일시에 고
 왈 손로야의 말승이 가장을 흐셔이다 하고 즉시 지전을 슈습하 여저를 작만하고 승장을
 청하 여경녀어 복록을 점지하 여지이다 하거늘 승장이 경을 버리고 지전을 살은 후이 밤에

편히 조고의 일에 이러나 행장을 차려 길을 나니 제승이 전송하더라
 ○ 제심팔회 관음원승장팔화 고로장행조항마

초설 승장의 스승 제조 관음원을 떠나 길을 나서 흐로 향할새 차시는 정히 봄이 길흔 지라
 방화는 작조하 여봉접이 분비하고 개슈는 잔조하 여푸른 버들은 장을 드리웠스니 경물
 이 가려하고 가장 길가기도 흔적이라 오륙일을 이어 길을 행하더니 하로는 늘이 점을 썬
 멀니 바라보니 흔 초옥이 잇스되 극히 정결하고 푸른 디와 맑은 물이 들니 스니 장려하 여
 비거늘 승장이 행조다려왈 저되 밋히 비는 거시 인간인 가시부니 도히 쉬고 가갓다 행조
 디와 과연 인간인 가시부니 다하 고 말을 모라 촌어 귀에 나가니 흔 쇼년머리에 무
 명슈건을 쓰고 몸에 푸른 옷 입고 발에 초혜를 신고 다리를 벌것게 고등에 우산 푸기를
 메고 멀니 가는 형상이 어늘 행조드리다라 붓들고 무려왈이 곳지 명과 촌명이 무엇이라
 하노쇼그 쇼년이 썬리치고 중조 쓰지조며 이로디이 화상이 무려볼스람이 업서 구린여
 총망이 가는 날다려 못노쇼 행조왈 쇼년은 무슴일노그리로하노쇼지 명만 이르고 가
 무엇이라 립관디이 리 위운체하노쇼 날코똥케하면 나도 멀니 가는 길을 똥케하리라
 쇼년이 똥놀며 왈이 머 리된 거시 엿지이 리잡된 체하노다 나는 촌명도 제명도 모르노라
 행조왈네 저리 앙살하니 나의 슈단을 보라하 고그 쇼년을 의우 잡고 오루 잡아 걸니며 진
 언을 염하니 그 쇼년이 우산 푸기를 바리고 못박은 다시 몇조이서 조움작이 지 못하노지
 다 두손으로 행조를 붓들녀하거늘 행조왈네 착하거든 설치고 갈소나 그 쇼년은 눈을 부

를든고와이리필박하면죽어도이르지못하니박비가는스름을슈히노흐라하니행
 조두손으로드립셔붓고철거등을하거늘삼장이일오티오공아다른사람이업관티
 구티여그스람을붓치는다노화보니라행조웃고왈스승님은모르시리이다고붓치
 니그쇼년이견디지못하여왈이곳은오스국지계오니마을스람이티반이느고씨니이
 러무로고로장이라하니이다이제일녘스니노와보닐소나행조또갈오티네모양을보
 니필경멀니가는립시라이제어티로가며엇지이리총망이가는다이두가지일을이르
 지안이행면련지키벽하여도늦치아니하니라그쇼년이혈일업셔그제야바로고하되
 나노고티공가정고지러니티공이흔살이잇셔나히이십이나하되흔인을아니하니
 삼년전에흔요피의게아인티되니요피티공의살을다리고뒤방에김히감초와문을닷
 아두고부모도보지못하게하니티공이불행이네기느중요피를사회숨으니장구홀도
 리아니라한가지불상흔일이오가문을더러히니두가지불상흔일이오면복도보지못
 하니제가지불상흔일을엇지다괴특하니오하더라행지듯기를다하고섯더니고지또
 하는말이날을은량을슈어요피잡는법스를청하여오라하거늘전후에여럿을청하여
 요피는잡지못하고변만덤々도々와너니우리티공이날을무슈히쑥짓고반전은조닷
 량을슈며와아모티라도가착할법스를다려오라하미빨니닷더니이리잡혀노이지못
 하니일이입의그릇되엇는지라바로고하느니노화보니라행조왈슈고로이멀니가지
 말고은조도또흔히비말고다른화상과도스느빅이라도잡지못할거시니너그런요피

잡기를잡하니도로드러가티공다려일오디셔련에비불하고경가질너가는티당황
 데흔쳐어데성승승장법스의데조행조야손오공이요피잡기를잡하다하고신동이
 거룩하여지조던하여저당하리업다하고일으라고지일오티로화상이우리를속이면
 큰일을그릇민들거시니실정잡는다행조왈엇지거짓말을하리오슈히네집으로다
 려가라하니고지또흔것거하고푸키를도로메고스승제조를피셔한가지로티공의집
 문압허가머무르고저안호드러가다가태공을만나니고지행조의말을조셔이고
 혼대태공이청과에황망이의관을정제하고문밖게나와마조좌정후삼장의게음하
 고레하거늘삼장이답레하되태공이또흔행조의게음하려하되얼골이하흔악흔지라
 접대하거슬희녀겨레슈를아니하니행조것히섯다가로하여일오티태공이엇지로손
 의게레슈를아니하니이느티세왕을거우는작시라하거늘태공이고지를블너쑥지져
 왈어디가이런피혐죄공갓흔거슬다려와날을욕하게하느다행조왈티공이비록나히
 높흐나일흔바히모르느도다스람을얼골노취흔죽로손의얼골이곱든못하니다만지
 조잇느니네집에요피를잡고네빨를도로쳐저올작시면로손을혐의로하너겨대접지
 아니코날을엇지려하느다태공이청과에갑니여레하고당에을쇼셔청하거늘행조
 행리를고지의게맞고빅마는마구에드리고스승을싸라당에을으니태공이쥬홍
 철흔교위에안거늘행조것히섯더니태공이문왈대당으로오신다하니어대셔지가느
 노승장왈빈승은동도대당황데흔쳐어데로서여련축국대뇌음스의비불하고경가

절너가더니 귀흔디 방서지 왔는 지라 하로 밤조고 고저하는 니다래공왈 집을 비러
 조고저하면 엿지 요괴를 잡는 다하나 노행자 왈 엿지 거짓말을 하리 오아 못커나 그 요괴
 의 근본과 저조를 이르며 로 손이 뜨연 처치 할도리앗스리라 티공이 일오대우리촌장에
 네부터이제 사지 요괴잇는 말은 뜻지 못하엿더니 로 부불행하야 달이 업고 썰세흘나
 흐나 맛쌀은 향란이 오들지는 옥란이 오셋제는 취란이니 향란과 옥란은 출가하고 취란
 을 스랑함을 과히하야 부귀흔스회를 엿고저하야 덕셔하더니 스년전에 한고흔스나
 희부능산에 잇는 제슈지라하고 와 혼인을 구하거늘 로 부속아 스회를 삼으니 혼번문에
 드러온후는 비록 누웃치나 할일 업셔 대접할 썩이러니 그후는 제본상을 닐여되니 불이
 길고 귀크고 썩뒤히긴 열이 드리오고 티부르고 제되 추악하야 뜻히 얼골이라 논 밧갈기
 와 뒤간치기를 가리와 삶과 보습장기 업셔 부리로 잘하며 혼때에 밥닷말앗치 식먹고
 술을 동이로 먹으니 로부의 가산이 부족하야 어둔후에 오고 밝으면 간대 업셔 그 종적을
 알길 업나 니다삼장 왈 스회식품이 너 무너르면 먹이기 어렵겟도 소이다 티공 왈 겨기는
 소식이 너와 왕니 할적이면 풍우를 지어가고 비스쥬셔하야 안의 자옥하며 우리집스람
 은 너니와 일촌이 보전하야 사지 못하게 되엿스며 취란을 뒤히져 근방에 넛코잠을 쇠로
 치와 문을 잠가두고 부모의 낫을 보지 못하며 또 혼이러함으로 요괴 졸알고 정사망극하
 여아모리도 스와 법스를 청하야 와도 잡든 못하은 즉 변란만도 스니 더욱 망극하야 하
 니 오날 스장로를 만나 미요괴를 잡을 가하노라 행조 것히 셤다 가 팔을 부루것고 이로

대관게치 아니하다 로 손이 하날도 두려아니하거늘 이거야 하로 키야지나 달으라 오날
 밤에 그요괴를 잡아니고 티공의 쌀을 평안이다려다가 부모를 뵈게 할거시니 로인의 뜻
 이 엿더하노리공이 깃거스레하고 전역재를 쥬하야 먹은후 행조다려왈이 요괴잡기
 를 무슴병기를 쓰며 스람은 얼마나 다려갈고 일직이 준비하교저하노라 행조왈너게 병
 기잇스니 슈인은 근심말나 티공 왈너보기에는 장외병기 업셔되니 석장으로 요괴를 처
 려하노다 행조귀속으로 바날을 닐여 번득여 쇠막대 띠드러 썩히섯고 왈이 병기는 너
 희병기에 비하면 엿더하노리 요괴를 능히 잡을가 시부나 늙은거시 무섭도아니하나 티공
 이 소왈 병기는 과연 좃커니와 스람은 얼마나 다려가려하노 노행조 왈 로 손이 혼조가도
 쥬방귀 갖흔지라 스람은 안나 다려갈거시니 요괴잡길냥은 근심치말나 우리스승님만
 편히 되셔로야의 마음을 질 겁게하라이리 말할제 밤이 드러거늘 행조스승께 하직하교
 쇠막대를 예고래공을 다리고 뒤흐로 드려 혼집에 다스르니 과연 문을 잠것스되 구리
 집을 씨엿거늘 행조래공다려왈 엿지 열쇠를 갖다가 열지아니하나 대공 왈 열쇠로 열
 작시면 스부를 무슴일노형하리 오행조 왈 늙은이 비록나 희는 진득하나 로 손의 희롱하
 는 말을 몰나 드르니 늙은이나 허쓸티 업도다 하교 쇠막대를 들어치니 돌바아지듯하거
 늘 행조문을 열고 왈 대공은 쌀을 불너보라 대공이 목이 매여 부르되 삼녀야 아비왔노라
 하니 취란이 제아비 소리를 듯고 곳쳐져가는 소리로 티답하되 오날은 엿지하야 오
 잇가하야 오거늘 행조어두운속에서 조셔히보니 운빈이 어지럽고 옥용이 실음으로써

엿스니 과연 영국 지식이라 얼골이 누르며 혈기아도 업고 요괴의 깨달호여 심히 여
 엿스니 하마죽게 되엿는지라 부녀서로 안고 방성동곡하거늘 행즈말녀왈아직울기를
 곳치고 요괴단이는길늘일이라 취란이 목이 매여 왕어 두면 오고 밝으면 구름과 안기라
 고 단니기로 아모리알녀하도 아모디셔오는 줄 모르나이다 오공이 일오대 잡스 설말
 고래공은 설을 다리고 도라가라 손은 여셔 변을기다리니 염녀말고 가라래공
 이 취란을 다리고 드러가니 래행즈즉시 변호여 취란이 되어 홀노 방에 안즈기다리더니
 이윽호여 광풍이 여러나며 호요괴 반공중으로셔 오니 부리길고 귀크며 푸른 옷납고 슈
 건으로 씩고 오거날 행즈왕이 거스스 람을 호렷다호고 나와 맛도 아니호고 거짓상우
 에서 조는 체호고 신음호여 알거늘 그요괴 행진 줄 모르고 취란만녀겨다라 들어 허리를
 안고 입을 맛초거늘 행즈 왕리치고 두손으로 허리를 잡아치니 거시 점적이 물너져 안
 저 부뒤싸고 이러나 등을 두다려 일오디 낭즈야 오날은 피히이 구는 다오기를 더대호여
 로호엿는 다행즈 왕무엇이 고히호리 오옷을 벗고 잘만호여 무슴 잔말을 호는 다그요괴
 그 말을 쇼히녀겨 옷을 벗고 상에 올라 행즈의 등을 어로만져 왕낭즈야 네아모리 설호나
 어 더러 같고 호며 옷을 벗기거늘 행즈길이 한숨 짓고 왕나의 팔즈그대도록스오나 읊든
 가호니 그요괴 일오대 오날은 팔즈를 한탄호는 다예와 먹기를과 도히호나 이집 더러온
 식궁치기와 물다히기와 뒤잔치기 온갖 일을 다호고 쯔그대를 쓸갓치스랑호여 다른계
 집도 아니호고 가만이다니 거늘 엿지 팔즈를 한탄호는 다행즈 왕다른일에 한탄함이 아

나라장뵈오가 에드러온 후 부모 동성도 보지 못호고 친척도 보지 못호게 하니 스회도리
 를 전혀몰은지라 계집의 마음에 엿지 숨호지 아니호리 오그요괴 왕의 얼골은 본대하
 날에서 숨기 체되니 할일업는지라 이럼으로 남보기붓그러 장인 장모를 보지 못호엿스
 나니 얼골이 곱고 저호면 면처럼 변호여 슈재되기는 어렵지 아호고 근각도 알고저 할
 진대복능산은 잔등에서 스는 제슈재니 엿지 근각인들 희미라호리 오행즈그제야 스는
 곳을 알고다시 눈물을 씨스며 흘슴지며 왕이 제엿일이야 다 관게 할가 마는 우리어버이
 그대를 실혀호여 대가 찢겨잡는 법스를 어더우리 인연을 쓴 처려호니 행호리 별할가
 호여 설혀호노라 그요괴 쇼왕부즐업시 근심말고 잠이나 편이쉬고 잔염녀 말나셔른여
 셋가지런 살변화와 아홉니가 진정파잇스니 비록 대상군을 청호여 와도 손톱만치 겁
 니지 아니호리 로다 엿던 목숨재축호는 놉이 왔다호더 호행즈 왕드르니 오릭년던에대
 료던궁호던 제던대성 손오공를 다려왔다호니 무슴 재료를 가졌는지 몰나호노라 그요
 괴머리를 싸지오고 일오대 필마온이라 는 놉이가 장 폐로 오니 아적 피호고 처여 보니 는
 거시 상척이라 호며 문을 열고 나가려호거날 행즈 본상을 니여 드립더붓들고 호손으로
 뺨을 나라가게치니 그요괴 호비빅산호여 바람이 되어 다라가거날 행즈 쇠막대를 들어
 쯔쳐가니 그요괴 쯔변호여 복능산으로 닷거날 행즈 쓰르며 웨여 왕네도 솔궁으로 올라
 갈다쌍으로 왕스옥으로 드러가나로 손은 피치 못호리 라호고 금즈 방을 두르고 제강년
 을 쓰라가니라

○제십구회 운잔동행즈슈팔계 보도산현장슈심경

어서에행즈제강념를싸라운잔동에가니그요괴골노드러가본상을너아흡니가진
 드릿스량이면무슴재조잇관대무섭도아니하여감히나와목숨을치촉하논다제강념
 왈나논니가흔들잔남이아니오상계던봉원슈러니상던이지조를착히너기스특별이
 던상원슈를하^이시니슈병십만을거나려절월을가지고다니더니광한던에서왕모냥
 사의반도회에청^하였거날가서현양훈풍치의호기말^하여취중의항아를희롱^하니욕
 데로하스불기일천을쳐하^기에나리치스이얼골이되^었스나엇지니필마온을조금
 이나두려^하리요아못커나니정과를흔번마즈보라행즈필마온이란말을듯고대로^하
 여다라드러혹야중에서사^로시도록시살^하다가동방이괴명에제강념이대적지못^하
 여다라나운잔동에드러가숨고나지아니^하거날행즈골문밧게가보니셔비에크게
 첫스되운잔동이라^하였거날행즈일오대이놈이겁^니여숨고나지아니^하스승님이
 기다리실거시니잠잔도라가대강이나말^하고다시외쓰와잡음^이늦지안타^하고이
 의촌장으로쫓^츠도라오니삼장과대공이종죽고씨를다리고말^하고잠을아니즈거날
 행즈구름속에셔나려와외왈제즈오나이다대공과종죽이일시에나려고두스레^하
 거날삼장왈오공아네엇지그요괴를잡아오지안는다그거시예스요괴아니라상계
 던봉원슈로서술를취^하고월궁항아를희롱^하미상던이로^하스그얼골을만들어하^기

에나리치니그일흔은제강념이라^하고밤에로손의게쫓기여바람과화광이되^여다라

나거날로손이구름라고싸르니그거시져잇는복능손으로다라드러가더니아흡니
 가진정과를가지고로손과쓰호다가하날이발가을씩에피^하여드러가골문을닫고나
 지아니^하미이곳셔괴별을몰나답^하하^하실가^하고^하려오니이다대공이썩러고
 왈비록쫓츠스나스부가신후^또와셔작란할거시니그제는우리성명을보전치못할지
 라상담에일^넷스되풀을버혀^썩리를업시^하라^하였스니후환을업시^하시면로부맛당
 이전도를반에난화장로의게드^리사이다업대여빌건던우리가문의말은절기를보전
 하^여남의게우음을^받지아^니닛게^하여주소셔행즈쇼왈대공은무삼헛말을져^러게^하
 나노^니드르니그거시비록음식을만히^먹으나집거시아니라제가다작만^하여오노라
 하니이난셔로히롭지아니^하고하물며그거시요괴아니라하날신령이니문호상적할
 거시니네설을히^흡은^식로이스랑^흡을^살갓치^하거날무슴근심할비^잇스리오대공이
 눈섭을썩고^와로야^논스람을너무^조릉^치마르^쇼셔^어대^스를^일우^어주소^셔삼^장
 이일오대오공아네^주인을고^만보^쳐고^어셔그요괴를잡아근심이업게^하여라^행즈우
 으며^와로손이^맛당이^힘을다^하여대공을즐^겁게^하리이다^하고구름라고^운잔^동에
 가니제강념이일오대이^정과^는던지^키변^할제^하날^정기로^된거시라^대상^로군^팔과^화
 로의너히일월정신을^정하^여영^쇼보^전의^드리니던^봉원^슈로서^스히^로희^행할^제상
 던이^주시니^엇지^괴특^지아니^리오^네무^삼일^노우^라장^인의^청을^들어^이리^괴롭^게하^는

다행조왈네장인의청을드름이아니라니이제는엇그른일을바리고을흔도에나아가
 미로손이슴장법스데조되어동도대당황데명을밧아서역던축국대뇌음스에비불호
 고경가질너가더니고로장에일으리대공이하슬허히내불상이너겨너를잡아후
 환을업시하러하노라제강념이차언을듯고불시에정과를바리고나아들어업디여절
 하며왈스승님이어디게시요형은쇼데를다리고가서되오라행조왈스승님은외와무
 엇하랴하느냐제강념이답하여왈남히관음보살이날을원하여서던에경가질너가는
 스람의데조되어부처의정과되어들면전시죄를스하고부처되리라하시미주야로기
 다리더니금일형을만났슬줄아랏스리요행조쇼왈네간스흔말노날을속이고저하
 는나네스승님을보호하여가고조하거든네밍제하여의심을풀게하라저강념이하날
 을우어러남무아미타불하고밍제하되니관음보살의정과를드렸스니바리고다른뜻
 을먹으면그시로일만조각에쓸어죽으리라행조왈그리하면네잇든곳을불지르고일
 후염녀를원코로손을싸드라저강념이골어귀에불을노화경각에저를만드니행조정
 파를아스가지고왈이제는의심이업스나그리도못갈거시라하고터력을써여바늘
 을만드러귀박희죽츠찰나미고가지하너저강념이귀압과견디지못하여늦추어달나
 하니행조왈네비록압파하여도스승님께외이고늦츠리라하고들이다구름타고사로
 창에이르러행조저강념을귀박귀를밧어살고오며왈이놈아정당우히안조신이는우
 리스승님이시니아가봐오라티공과고씨종족이행조의요괴미여오노양을보고살

에나려절하고스레하여착히너기더라저강념이삼장을향하여고두하고왈스승님이
 우리장인의집에와계신줄모르압고이제야와봐오니죄를스하소서삼장이이로티
 오공아잡아온요괴엇지제조라하느냐오공이저강념의정과조로조귀박휘를치며
 썩지져왈이즘성놈아내엇지실정을아되지아니하느냐저강념이썩러엿조오디향일
 남히관음보살이원하여서던에경가질너가는삼장법스데조되어서던에가성공작불
 하오물조셔이이르셨는이다삼장이티희하여티공을불너향안을비설하고남히로향
 하여절하너고씨일문이또호절하더라례를맛치미삼장이다시교의에올나안고오
 공을불너그민거슬글너노흐라하니행조즉시다라드러민거슬글너늦코쇠막디로귀
 박휘을흔번치너저강념이다시이러나삼장세절하여외고제조되어서던으로피셔감
 을원하나이다하고행조를향하여절하여왈형은먼저드러와스승을외셨스니스형이
 라부르리라하거늘삼장이천히머리를썩가주며왈네임의부처정과를드추우리제조
 되었스니법명을지음이엇더하노저강념관음보살이제조의일홈을오롱이라지어
 주시니다삼장이쇼왈네일홈이또호오공과갓르니하날이정하선연분이로다오롱왈
 보살남일홈지어주실제경계하시되게오르지말며마늘과파를먹지말며스람을죽
 이지말며담심을너지말며청염하라하시고하시니비록다행치못하나장인의집에슈
 년을잇셔도마날과파와고기를먹지아니하엿는이다슴장왈보살님의경계다지극하
 신지라네모양을보니시행기어렵도다가자경계하염적하니일노인하여일홈을팔계

라하노라 팔계갓거 절하거 놀티공이 심중에 티희하 여종족을 모화잔치하 여슴장을 전
 손할서슴장을 청하 여유벽에 안치고 오공과 오릉을 차례로 안치고 티공이 하는 서벽
 에 안고 음식을 드리고 태공이 주준을 나와 하날씩 제하고 또 혼잔을 부여슴장을 권하
 디슴장이 나로 디술먹기는 부처의 웃듬경이라 공부를 닦근지 오티니 일조에 폐치못할
 지라 혼티오릉이 곱히섯다가 부리를 닦고 두가거리며 술먹기를 금할작시면 비록
 갈산자옥에 들지라도 중되기논어 외라 혼티오공이 손으로 긴 부리를 치며 말이 덩터
 된도야 지놈아 조금 식먹으면 스승님이 그리금치아 니려니와 만히 먹고 취하야 일곳그
 름민들면 뜻치니 리라 팔계지긋거리며 행조로 더부러 큰잔에 가득 부어 먹고 조화
 하는지라 잔치를 파하 디태공이 은조 비량과 비단 옷세벌을 혼티니여 늦코이로 디소사
 레물노정을 표하 나이다슴장 왈 스승제조 연히어 더먹었거니와 부절업시 레물을 주
 어 든나 논중에 도리로 참아 밧지 못하 리이다행조 또 혼손을 쳐으며 왈 나가 지든아니 할
 지니가 저가 라하고 이에 모다가 저고조를 주며 왈 널노하 여금덤덤된 동행을 어덧스
 니스레하노라 하니고 조밧고스레하거늘 태공이 은을 밧지아니물보고 다시 삼장다
 려왈 적은 레물을 밧지아니하시니 붓그럽거니와 비록 출가흔스람이나 옷을 밧아길에 입
 고가 시기를 천만바라나이다슴장 왈 출가흔스람의 행실이그렇치아니하니 남은 음식
 만 말니여 넋코가 도죽히먹을지라 주인 의은혜를스레하노라 팔계갓거섯다가 태공을
 향하 여왈 스양하 시논스승님을 굿하 여유려하 고여러히스외되었든 날을아니유어보

디시나 잇고스형과 밤이시도록 쓰호다가 옷을 다 바렸스니 옷흔벌과 신어갈신을 주소
 서태공이 마지못하 여다차려주거날 팔계왈여러히부사 되여정이 중하 더니이제중이
 되여찌나니 다시 못볼길이라 닥안히도되지아니려하논다 오공이 유등을 나라가게
 치며 왈이제 논중이 되었스니 무슴잠염을 먹고이리잡되게 구논다 팔계붓그러다시말
 도 못하 고량안애 눈물을 흘니고 못이져하 논 빗치잇거늘 오공이 미이너겨져 뒤여세
 치니 팔계부비 씻고 목을노와우니모다 웃더라 삼장이 두제조를 다리고 행리를 슈습하
 여태공을 하직하 고빅마를 타고 고로장을 떠나가 더니 혼되히다사르미향나 무가조옥
 혼디창송이나사하 고봉황과미륵의 무리단이거늘 삼장이 괴혹이겨왈 오공아 이곳
 지어디뇨 팔계왈이외일흔은 부도산이오외속에 오소선스잇셔도를 닦는이다삼장이
 사로디내엇지아논다 팔계왈제일죽날을 권하 여도를 비호라하되아니갓스디그러함
 으로아는이다슴장의 스승제조 오를보고이러나거날슴장이 말세나려 절흔 디선서
 손을 잡고 왈선성은이러나라 멀니맛지 못흔 죄를스하 소서 팔계나와 음하야 왈로선서
 야 귀흔몸이 레하 나이다선스 놀나 왈내복능산의 잇든제강념이로소이다 무슴연고로
 선성과 동행하 논뇨 팔계의의견 후곡절을 일오디또 행조를 가듯쳐왈이논누라하 논뇨
 슴장왈이논나의 웃듬제조 손오공이로라 선서왈큰 일흔을 드론지오티되일져서로보
 지 못하 였더니 오날사 만나니 다행하 여라슴장이 절하 고왈서천티 되음사에서가기 열
 마나하 노선서와 겨오만여 리논왔고이제 도팔만여 리라길에 모진요피와 짐승이 만하

니 근심하노라 너희가 여리쥬신말라 신경이 잇스니 염하면 아모리 어려 온일이 잇셔
 도 조연이 무스하리라 하고 무릇 오십사귀 오글조는 이 백삼십사조를 입에 외와 이르니
 숨장이 마음에 염하여 외와 다 읽으니 선식 변하여 일도 금광이 되여 보되 에오르니 숨장
 이다 시우러 서천가는 길흉을 무르니 선식 웃고 왕길이 멀고 물이 험하며 모진요괴만
 코이 압히 쥬정령과 범의 정령이다 어러오니 들잔남이 와도 라지도 음을 밋지 말고 극히
 조심하여 가라하거 날숨장이 절하고 스레하니 행지되야 쇠막대를 두르고 죽쳐올
 나가니 다만 홍광이 들니 막거 날행조 비록 서동이 잇스나 치지 못하느니라 행조성녀
 왈 서던길흉을 못느티었지 우리 형제를 슈육하나 노숨장왕에게 압핀일이 업거 날무숨
 일노성녀는 노행조왕돌잔남이란 말은 토손을 이름이오 또 호제조의 지조를 업슈허너
 거 말홀이 말하니 엇지 노흠지 아니하리 잇고 팔계왕스형은 성녀지 말나 이 선식장녀일
 과이 왕일을 낫사치아나나 이 압만조심하지 무숨일을 남과 결우려하는 노숨장이 행조
 를 꾸짖고 선스하직훈후길을 떠나가니 이는 부처의 알오미러라

○ 제이십회 황풍령당승유란 반산종팔계정선

차설숨장이 선스를 하직하고 길을 가니 츠시는 김흔여름이라 늘은 덥고 풀은 자옥흔되
 멀니 바라보니 녹음창암 높흔저에 석양은 기우렷고 장제만슈의 미암이 쇼리 열々하고
 길게나는 곳에 초옥이 뵈이 거늘 숨장이 일오디져 곳에 인가 잇스나 하로 받을 조히조고
 가리라 팔계왕요스 이 비급하설위하더니 지나어 더먹게 되엿다 행조왕 집성각고논 첫

것슨 집혀논 지열마나 되엿판터어너스히에 음식성각을 그리하느다 팔계왕스형아니
 엇지구름과 안기를 먹고 살지 못하리니 스승을 피셔 온지 여러날이라 이 착흔로 제다려
 무숨잔말을 그리하느다 숨장왕출가흔스람도 무숨원망의 말이 잇스나하, 밀게나려
 나아가더니 다만보니 외아리호로인일오티결운상우히안져 념불하거 날숨장이 쇼리
 를나직이하여왈 지나가는 종이되나이다 그로인이 황망이 상에나려의관을 정제하고
 마즈니 숨장왕빈승은 동로디당황데 홀쳐어 제숨장법스로 서성지로 밧조와 서던디
 되음스의 비불하고 경가질너가더니 길이 귀흔마을를 지는 논지라 하로 밤더시물청하
 나이다로인이며 리를흔드러왈 서던의 경가질너가나 득달키어 령고 구태여 경가져오
 려하거 든동으로 갈거시라하거늘 숨장이 마음에 헤오티보살이셔 호로가라하시더니
 이장로는 엇지 동으로 가라하느고 마음에의 심하여 반향이 나답지 못하더니 행자본디
 경망흔괴물이라 급히 웨되네나히 열마나흔지 모르거니와 가장일모로 난흔은 이로다
 멀니셔온스람이 집을 빌어 자사하거날 무숨일로이디도록 슬허너기는 노네 집에 잘씩
 업스면나 무그늘아리셔나 잘거시니 하용심 말나로인이 숨장을 붓들고 왈 나는 아모말
 도안이하엿는디 부리쥬죽흔제자로인을 침로흔은 엇지미요행자 왈 몸은 비록 죽으나
 속은 살갑거든너만거시야 몰나보라 엇지도로 허욕하는 노로인 왈네 무숨일로머리를
 짝고중이 되어어 른을겨루려하는 노행자 왈로손은 화파산 슈렴동의 서살며디료던궁
 하든 제던디성이언이와이제 부쳐되려하고 중이 되어야 서던에 가나니 비록요괴를 만나

도하날도두리지안이허거날좀체요괴항복받기야좀치에니것이는 다르랴로인
 활이화상은지장말잘하는도다행자왈요어린자식만흔거시네말을잘하는체하는다
 나는멀니셔오는적이니갓바하거늘무슴말을긋쳐림하는노로인왈네슈단이잇서
 서련에가려하거든잔부리를놀리지말고아못커나드시키고가라슴장왈로쥬인아밋친
 이제자의말을로하야말고행혀용납하시리잇가일행세종이조히자고갈가하노라
 로인왈세종이라하니하나흔어디잇는노행자왈로인의눈이머릿판뒤저남무근들의
 서쉬는거슬몰나보는다로인이머리를드러보니팔계자다가큰귀를뒤저기니로인이
 놀고두려소리질너왈요괴오니문을다드러하거늘행자붓들고왈로인아놀는지말
 는저거시요괴안이라스제오름이니마음을정하소서로인이셀며왈그화상이하도후
 악하니는노요관가하야놀났노라팔계는아가일오디스람의얼골을취하는가니곰든
 과연못하거니와쓸곳은만흐니라하거늘모다웃더라정히남으로서두쇼년이흔하
 은한미와셔너아히를다리고웃을메고다리를벌것케드러내고오다가문밖에서행자
 와팔계는보지못하고행구와빅마만잇고지저귀거늘는아가못고져하더니팔계근부
 리를들어보니그한미와쇼년과아히등이진짓귀것만너겨셔동서를분변치못하고다
 라는거늘슴장이크게웨터우리는동토디당황데흠쳐성승슴장법스로서서련에비블
 하고경가질너가더니귀흔지방에이르러하로밤드시키고고져왔스니져부리길고
 귀큰화상은들저제자져오름팔계니놀는지마르쇼셔그한미바야흐로정신을진정하

야쇼년을불너다리고드러와한미와세아히는바로안으로드러가고두쇼년은슴장의
 게나아와레하고로인의좌하에물너썩러안거늘슴장이사의답례하기를맛고로인다
 려문왈이는뉘니잇고로인왈이난나의지식이니다슴장이우문왈영순이멧치나되는
 니잇고로인왈두지식의게세히로라말을맛고쇼년을식여츠를나와슴장의스승데저
 를권하고안저말슴할식삼장이문왈로시쥬의연귀얼마나하노로인이답왈천흔나히
 금년에환갑이로소이다형저참지못하야왈로손의일만디손저만도못하네너겨더니
 그리도환갑이로고나슴장이썩짓고문왈로쥬인이일오디앗가쳐음에서련의경가져
 오기어렵다흠은엇지미노로인이이로디귀위오기는어렵지아니하되가기는어려오
 니에서삼십리만가면황룡령이란되이잇스니팔빅리의연하였고그외속에모진즘심
 이만흐니지나가기어렵거니와져부리셀죽화상이하저죄만흔패니무스히지날지
 나도몰나라흔디행저왈그만거슬슈고안야쳐차하리니제아모리착하여도이로손은
 거우저못하리라하고말하더니쇼년들이재를드러다가상우에버리거늘삼장이먹으
 려하고합장하고공경하더니팔계는시작도아니하여셔흔그릇을늘늘스스먹고사승
 이식경을못하야세스발을먹으니행저썩즈지되덤터도다지놈은그리아귀앗치구는
 다로쥬인이오름에비곰파하노양을보고쇼년을불너밥을더노흐라하니팔계본디재
 강먹는숨근놈이라오난죽사맛아셀흔일곰그릇을먹고삼장과행저는두사발식먹으
 니쥬인왈창졸에반찬이업셔감히더권치못하노라팔계왈쥬인이쥬기슬희여셔헛

탈항은고나나는소금도업시누른밥재를쥬어도스양치아니라로인이그항은양을
 보려하여못스람의먹든밥을아스또설흔계스발을쥬니다밭아먹고질거비를두다려
 왈오날이야반비나쳐왔다하니모다웃더라이날밤에장문안에서삼장은뒤로결은상
 즈에안고오공과오릉우행낭에서푸기를베고잠을드더니날이밝으미이러나니로
 인이분부하여이른재를조히하여먹이거늘삼장이스레하고가려항거늘로인왈이압
 히가는길이가장어려오니가다가못가고올거시기다리마항거늘행조왈상담에쥬
 인은손의씩뒤도보기실코행인우뒤를도라보지아니한다하니어셔가스이다항고스
 승을말티와행할시오릉으로푸기를베고셔호항하여흔놓흔뒤흐잇스니가장사나
 온괴운이가득항거늘삼장이두려데즈들을압제우고말을모라되에올나갈셔든
 일지광풍이사러나거늘삼장이놀나왈바람이가장괴이하니무슴일이잇스리로다행
 조왈바람이부러든그무삼일이잇스리오스릉이행즈를붓들고왈스형아네말이그르
 다이바람이야마도슈상하니나는잠간피항리라행조쇼왈네쥬적되고착흔체항더니
 오날은엇저저러어리게구는다나난바람말고요괴를만나도두리지아니항노라상담
 에석피항기를원슈갓치한다하니우리흔조썬이면관계치아니항거니와스승님을뒤편
 시고가다가만일변이잇스면엇지항리오너는육어가거니와니몸이이에어엿부니
 니이제피항려항노라행조바람잇는곳에나아가곳곳이삼혀보니과연비린너거늘
 팔계다려일오뒤과연바람이도치못하니요괴괴운이아니면일정범의괴운이라하고

정히말항더니되아리로셔큰범이소리지르고썬리를펼치고업디여잇거늘삼장이떨
 며팔계는메엿든행리를바리고정파를들고행즈에게스양치아니항고너다라썬지
 즈되이업축아이제우리를놀만겨길에나셔가로썬치는다그범이눈을부릅쓰고발
 뚝으로쓰홀허비며홍악흔업니를갈며왈나는황포랑티왕의전부선봉이러니티왕의
 명을받아순산하려왔거니와네엇던놈이완티병기를가지고단닌다팔계왈이업축이
 날을모르논도다나는그저스름이아니라셔련의경가질너가는동도티당황데어데흔
 채셔승승장법스의데조소니네도금슈이길을여러드리되도금이라도우리스승
 님을놀니게하면네목숨을보전치못항거리라그범이소리지르고다라들거늘팔계
 정파를드리치니그범이병괴업는지라티적지못하여다라나거날팔계급히쓰로니그
 범이흔모롱이를지나바회틈에서두조적동도를니여두르고팔계와어우려져쓰호
 거날행조승장다려왈스승님은놀나지말나하고쇠막티를들고다라드려팔계를도와
 치니그범이금선랄각계를(미암이허물벗단말이라)하여가죽을돌우히넙혀져를민
 드러눗코정몸은바람이되어숨장잇는디가니삼장이경을넙다가도를거날그범이거
 두쳐가지고황풍동에드러가당중잡아티왕에나트게쓰시게드리나이다티왕이깃거
 왈이중이열두티계집안닌금선저니먹으면장성항리라항거니와다만그데조신등
 이거룩다하니이놈을엇지항리오호호선봉왕그데조항나히아니라두놈이로티흔놈은
 부리길고뒤쳐지고아흥니가진정파를가지고한놈은부리썬쥬고금빛갓흔눈방울

에 쇠막대를 두루고치니 디적지 못하여 달걀 계를 행하여 저의 스승을 잡아왔스니 그것들이야 관계하리 잇가 디왕은 방심하고 낮거세 쓰셔 디왕왕이 것들이 가장 폐로운놈이라 잡아 합계 썩먹을 거시니 뒤동산들 보에 미여 두라 그 요괴 다라 들어 슈리 록기 처든은 어디가 고구치아니 하느뇨 하며 눈물이 비오듯 하더라 팔계 행지 힘을 다하여 범을 치니 손이 울니 여 압푸거 날 쯤서히 보니 정몸은 다라 나고 가 죽을 들너 님 헛거 날 행지 놀나 왈 우리 이놈의 쇠에 빠져스니 스승님을 아나 잡아 간 가 하고 급히 와 보니 스승이 간 디업논지라 행지 쇼리를 우래 갖칠 니 왈 이 요괴 스승을 잡아 갔다 하니 팔계 말을 잇글고 눈물을 흘니 거 날 행지 말너 왈 부절 업시 우지 말고 원슈를 잡아 보슈 하리라 하고 팔계를 다리고 한 되 흘넘어가니 돌빙이 잇스 되 창 송록 죽이 자 옥 하얏거 날 행지 팔계 다려 왈 현대여 이리로 갈 거시니 네 다라 협박 하라 오름이 나로 디가 릉 치는 디로 할 거시니 형은 슈히 가라 대면 스승님이 좃치 못 할 가 하노라 행지 바로 골 밧게 드리다라 보니 문우히 여섯 쯤 썩스 되 황룡 황룡이 라 하얏거 날 행지 쇠막 디로 문을 두다라 며 왈 우리 스승님을 슈히 쳐 보노고 큰 화를 면하라 문 직 현적은 요괴 놀나 급히 드러가 큰 번이 낮나 이다 하니 디왕이 문 왈 밧게 무삼 일이 잇는 다 잔 요괴 답하 디 밧게 되 혐외 공 갖튼 화상이와 스승을 쳐 보노라 하나 이다 디왕이 놀나 호선봉을 불너 왈 너는 순산 하라 가서 곰이

나 록기는 잡지 아니 하고 엇지 당중을 잡아와 동천을 요란케 하나 노 호선봉 왈 대왕은 방심하여 버키를 놓히고 게시 소서 소장이지 죄 업스오나 오십 명 소교를 슈시 면 행지 마지 잡아드리다 대왕 왈 우리 동종의 육철 빅소 줄이 잇스니 쓰 화잡으면 큰 고기 한 점 을 상하리 라 호선봉이 명을 밧아 오십 명 소교를 다리고 문 밧게 나와 호호 하느니 행지 대로 하여 썩지 되 이 업축아 우리 스승님을 쳐 죽이지 아니 하면 내 뼈를 바오리라 호선봉이 소래 지르고 노 다라 적 동도를 드러 마져 쓰 흘시 행지 쇠막대를 드러 어 지리 들너 어우러져 쓰 호되 이 결성 각은 아니 하고 다 골 밧기로 유인 하 여 너 오미 후 썩 호 호며 후 뒤 흐로 물너 점 밧그로 나오니 호선봉이 행지의 쇠는 모르고 그 피 흘 줄만 아라 급히 쓰로 니 행지 팔계 잇는 곳에 갖가 이 나오니 팔계 호선봉 나옴을 보고 부지불 각 다투다라 정과로 호선봉의 허리를 썩거 업지 르니 호선봉이 소래를 벽 녀 갖치 르고 죽느니라 자 서이 보니 큰 번이 어 날 행지 왈 로 손이 나 제다 시 드러가 스승님을 구하리 너는 이 곳에 잇스라 하고 골 노나 아가 더니 잇서 적은 요괴 호선봉의 죽는 양을 보고 급히 드러가 황룡 대왕의 계 화스료 나 나 하 되 호선봉이 손 행지와 싸 호 더니 부리 길고 귀 큰 화상의 계 죽은 배 되 니 이다 하 거 날 황룡 대왕이 대로 하여 급히 병 기를 들고 나와 쇼래를 질너 왈 손 행지 야 어대 잇는 다 하 거 날 행지 나 셔며 왈 손 대 성로 야 어 기 게 시니 스승을 슈히 내어 보내 여 큰 화를 면하 라 황룡 대왕이 행지를 보니 얼골이 여 위 여의 잔 짐 갖르니 다 략 고 기적 어 너 지 못 되 거 날 황룡 대왕이 썩 지 조 되 내 너를 기 득 할 가 여 겐 더니 호 병 든 썩 썩 귀로 다 행

조소왕요잔조식같은놈이 키 크려 하면 무어 시어려우리요 하고 몸을 흔드려 변하여
 두길이나 한사람이 되거늘 황룡대왕알네 변화하고 노라조랑말 나하고 다라드러 삼십
 여합에 승부 었더니 행조러 력하 나 흘싸여 씹어 썩리니 천벽이나 흘 행조 쇠막대를 들고
 황룡대왕을 짓치니 황룡대왕이 또 흘 신등을 내어 넘으로 광풍을 지어 내니 터럭으로 맨
 든 행조 다늘니 여다라 나 거늘 행조 황망이 터럭을 거두어 몸에 을니 고 흘로 쇠막대를 드
 러치니 황룡대왕이 또 흘 광풍을 지어 행조를 향하여 부니 행조 눈을 뜨지 못하는 지라
 일업서 쇠막대를 쓰고 다라 나 거늘 황룡대왕이 싸 흘을 이기고 골로 드러가더니 팔계
 말과 행리를 지히 었더니 흘연고히 흘바람이 이러나며 언디아득하여 눈을 뜨지 못하
 고 업대 었더니 이윽고 바람이 굿치고 하늘이 청명하거늘 이에 머리를 드러보니 싸 호는
 귀적도 업고 행조 서다 히로 오거늘 반겨 마 조나와 무르되 앓가고 이 흘바람이 어인 일고
 행조 손을 잡아 왕내 평성에 그런바 름을 보지 못하였노라 연하여 삼십합을 싸 호다가
 로 손이 가 행조를 밟드러 치니 그요 괴님으로 광풍을 부니 그놈의 바람 갖치 흥악 흘
 거 손보지 못하였노라 팔계 왕그놈의 지 죄 었더하 더요 행조 알 무예는 돕지 아니하 나 바
 름이 어렵더라 팔계 왕그러 하면 스승님을 었지 구히 내리 오 행조 왕내 눈방울이 압파 쓰
 지 못하니 눈을 곳치고 스승님을 구하 조하 고 말과 행리를 잇글고 대로 나 아 오니 밭서
 황혼이라 말니 드르니 남다 히로 서기 짓는 쇼래 나 거늘 나 아 가 보니 흘 존장이 잇고 등불
 이 뇌거늘 나 아 가 보니 흐로 인이 호 뒤를 들고 여러 농부들 다 리고 문왕어 대로 서 오 난스

름인 다 행조 레하고 왕우 리는 동도대 당 황데 흘 처어 데 성노 삼장 법스의 데 자 손오 공과
 제오릉이 러니 스승을 황룡대왕의 계 잡혀 보내고 또 놀이 쳐 무려 밤이 드러 자고 가려
 왔나 이다 로 인이 답 레 왕이 곳이 인적이 드물고 궁벽 흘 곳으로 앓가 문 두다 리는 쇼래를
 듯고 강돈가 하여 여러 스름을 다 리고 나 왔더니 두 장 되 앓다 하 고 청하 거늘 행자 왕이
 곳의 안질 약을 파는 대 잇는 나 로 인 왕장 되 안질이 잇는 나 행자 왕 나 는 분 리 붓터 병이 업
 고 약을 모르더니 황룡대왕과 싸 호다가 요 괴의 바 름을 만나 안질을 어 덧노라 로 인 왕이
 요 괴바 름은 동서 남북 풍도 안이라 가장 모 질고 독하여 쇠를 향하여 불면 터지고 언디
 를 향하여 불면 언디가 어 둥고 일월이 무 광하 나 니 가 히 당치 못 할지라 내 절며 서 신 선
 을 싸 라 도를 비 흘 제 신 괴 약이 잇스니 일 흘은 삼 화 구 자고 니 곳 쓰고 부 처 의 명으로
 스승님을 보 호하 게 하 었나 이다 팔계 왕 부 체 명하 신 일이 면 부 러와 병을 곳 처려 든 변
 하여 로 인이 되 여 밥을 먹이 니 더욱 고 맵도 다 어 서 스승을 구하 조 행조 왕 황 풍동이 머 지
 아니하 니 나 는 계 서 숨어 잇스 면 니 가 소 식을 아 라 하 고 근 두 처 드러 가 니 요 괴 들
 이 다 조 거늘 행조 변하여 요 괴 되 여 문 틈으로 드러 가 니 문 마 다 티 왕의 분 부를 전하 되 각
 조 심하 여 병 괴를 찢 혀 지 히라 행조 맛 춤 죽 지 아니하 었스 면 또 다 시 오 리 니 단 정 코
 죽 이 리라 하 거늘 행조 잉하 고 나 라 뒤 문으로 가 니 놀 흘 동 산에 버 들 우에 스승을 밍어
 지 윗 거늘 행조 스승의 머 리에 안 조 왕 스승님은 근 심 치 마 르 소 서 이 요 괴를 잡아 죽 이 고
 구하 여 너 리 이다 또 호 선 봉은 밭 서 팔계 에 게 죽 었고 로 손이 요 괴와 싸와 바람의 좃 처 여

피하엿스나 밍제코이놈을 잡아 죽일 거시니 아모근심마르소서 하고 다 시 날아 황룡요
 괴잇는 디로 오니 잔요괴들이 령괴를 들고 드러와 고히 되 소피 순행하다가 부리길 고귀
 큰 화상이 잡으려 하기로 겨오다 라왔나이다 이제 쓰호든 뉘희 뉘공갓은 화상은 동적이
 업도 소이다 요괴왕 행즈바람에 죽지 아니 하엿스면 어더가 구병을 청하여 오기 쉽거니
 와 그근심 이 업스며 만일 령길 보살이 오시면 엿지 하리 오행즈이 말을 듯고 암희 하여
 죽시나 라와 팔계잇는 곳에 이르러 본상을 뉘이로 되 오롱아 조히 잇는 나 팔계왕 앞가
 영괴 든요 괴왔다 가니 괴 뜻기 여 갓는 나 라행즈우으며 전후 슈말을 나르고 영길 보살이
 어 더 잇는 고히 더니 큰길 노서 혼로 용이 오거 날 행즈 문왕 존공이 영길 보살 잇는 곳을
 아스니 잇가로 용왕 저 슈미산에 계시니 라하거 날 행즈이에 슈미산으로 초즈가니 문전
 에 두어 도인이 잇거 날 행즈 문왕이 곳이 영길 보살 계시니 슈미산이니 잇가 도스되 왕과 연
 슈미산이 오보살은 안에서 송경하나이다 행즈왕 나느 동도 되 당 황 데어 데 성 승 삼 장 법
 스의 데즈 손오공로야 님이 러니 뵈오려 왓스니 보살 세아되 라도인이 드러가 고히 나 보
 살이 가스를 정제히 하고 오공을 불너 귀례로 보고 초를 드리니 행즈왕 어고 하되 스승
 님이 황룡티 왕의 게 잡혀 갓스니 보살 님이 구하심을 바라나이다 보살 왕 뉘이 리에 명을
 밧아 황룡령요 괴를 진압하라 하시며 정풍 단과 비룡 보장을 주시니 진압하엿더니 도망
 하여 민간에 작난 하엿도다 하고 즉시 비룡 보장을 가지고 행즈와 한가지로 황룡동에 가
 행즈 다려 왕이 놈이 너온 줄 알면 나오지 아니 할 거시니 네 드러가 혀너라 하고 정풍 단

을 주며 왕이 를 몸 에 넛코 가라 하시니 행즈 정풍 단을 품고 바로 골문 밧게 가 쇠막 티로 문을
 쳐치고 쇼리 지르니 요괴 들이 고히 되 티왕 아이 잔 남이 죽지 아니 하고 또 왓는 이다 티왕
 이 창을 들고 나와 보니 행즈 쇠막 티를 들고 다라 들 어 쓰호더니 그 요괴 행즈를 향하여 바
 람을 부니 행즈 조금도 상치 아니코 무흔 다라 들 거늘 그 요괴 고히너 거 공중을 치미러 보
 니 영길 보살이 와 계시니 라 황 겁하 여 다라 나 거늘 보살이 비룡 보장을 더 지며 진언을 염
 하니 보장이 변하여 여덟 홑가 진금 룡이 되어 홑을 버리고 요괴를 잡아 업즈르니 요괴 본
 상을 뉘이 에 늙은 쥐되는 지라 행즈 쇠막 티로 치려하거 날 보살이 말너 왕이 거시 령산
 여리의 랍 밧헤 늙은 쥐로서 류리 등에 청유를 도적하여 먹고 가름이 업셔어 두우니 금강
 신이 흑알가 두려 다라 나 요괴 되엿스니 여리 패심히 녀기시되 굿타여 죽일 죄상이 아니
 라여 리 밧겨 계시거 날이 제져 놈이 도망하여 인간에 와요 괴 되엿스미여 리 세가 청죄하
 리라하며 정풍 단을 초즈가지고 구름을 명에 하여 령산으로 가거 날 행즈고 두스례하
 고 팔계잇는 곳으로 가 한가지로 동중 에 드러가 삼장을 글너 늦코 전후 슈말을 일스이고 하
 니 삼장이 뉘번이나 스레하더라 오공과 오롱이 그런 잔요괴를 다 죽이고 삼장을 붓드러
 청상에 누와 동중을 뒤여 쇼찬으로 재를 하여 스스 데즈 비부르 게 먹고 황룡 동을 불질너
 업시 하고 서던 티로 향하여 나가니라

○ 제이 십일회 팔계티 전류스하 목탁 봉법 슈오정
 어시에 삼장이 두 데즈를 다리고 황룡령을 넘어 십여 일 만에 평디를 더위 잡아 행하니

정하여름이진하고가을이되었는지라 관수변음에 더암이 소리낼고고서령첫풍이
 향면하여습습하니가장길가기쥬흔셔러라한큰물가에다스르니물결이홍홍하여하
 날에다하스되고음이업스며또호전널빅업는지라삼장이행조다려왈환란을버셔나
 또이런큰물을만나빅업스니엇지하리요행조공중에뛰여올노보니너르기한이업
 는지라노려와스승다려왈이물이널비팔빅리나호고빅업스니전너지못하리쇼이
 다팔계왈영절스려은말스니이물이하날에다하거날팔빅리되는줄엇지아노호행조
 왈로손이천리밤잔즈리를보거날이만물너비를몰노보라팔계코우습하고고지듯지
 아니하더라삼장이물은건널길업고날은오허려남은더위잇는지라답사하여물가히
 와발을씨으며보니흐들비섯스되팔빅리유스하라첫거날비를보며근심하더니홀런
 물속으로셔고히호쇼리나며나츄푸르고머리북으며임니부르듯고번기맛눈의홍
 악호요괴최막티를들고니다라삼장을잡으려하거날행조황망이다라드러삼장을업
 고팔계는행조를바리고정과를드려요괴를막으니그요괴막티를들어마자류스하에
 서각사영웅들비양하여십여합을쓰호티승부를결치못하더니행조스승을놀흔디안
 치고들이쓰호는양을보다가스승다려왈스승님은방심하소서로손이팔계를도와져
 놈을잡으리이다삼장이이로티황풍령에흔조잇다가속앗스니오릉을마저싸호게두
 고가지말나행조경망호마음에분을참지못하여쇠막티를두르고다라드니그요괴
 흉악이니거팔계를바리고물속으로뛰여드러가숨으니팔계행조를썩지프되고놈이

점々검하여손을데늘니거날두어합만쓰호더면니정과로하마를치게되었더니형을
 보고다라났거니와또엇지잡을고행조소왈황풍령을떠노일삭이노되되심심하더니
 오날오릉이요괴와싸호는양을보나가려온마음을견디지못하여다라드러다가그놈
 을일헛스니엇지그놈다라날줄미리아랏스리오손뭇들고올노와스승을보니삼장
 이문왈너희엇지그요괴를뜻고온다이물이널고빅업스니부티이물심천을아나니를
 어더야건널거시니엇지하리요행조왈스승님말씀이올호셔이다상담에이르기를북
 은디가면북고거문디가면거문거시못는다하니물을건느려하면이물심천을이놈이
 조셔이알거시니부티스로잡아쓰려하나다팔계왈스승님은로데와잇슬거시니형
 은근심말고슈히드러가그놈을잡아오라행조왈현데야네감히헛부리를놀리지못할
 거시니로손이근두운라기를잡으며온갓변화하며산과평다에서는네개별일은업스
 되다만물속에논이지못하니아마도네흔번드러가리다팔계왈로데당년에던공
 총독원슈를하엿슬제십만슈병을가나려스히에회행하엿스니물속에일이야러럭쑈
 만천들로데가모르리요니드러가이놈을잡아오리라행조왈현데야네물속에드러가
 그요괴와싸호되각별이과지말고괴하지도말고물밖으로만혀니여오면로손이숨엇
 다가저죄를부려잡으리라팔계벌거벗고손에정과를들고엿슈단을너여물속으로뛰
 여드러가물밧호로가니그요괴괴하여드러가숨을취이쉬더니물얼니는쇼리나며팔
 계정과를출추며드러오거날그요괴쇠막티를들고막으며와엇던화상이완디감히슈

부에 드러오노팔계정파를 멈추고 알너는 엇던놈이 완티 감히 날노더 부러쓰호코져호
 는 다그요괴알나는던섯에잇는 권렴티장으로상던에득죄호여이곳에귀양와잇거날
 뒤뒤잔치든거슬가지고와서괴롭게구는다팔계왕이밋친요괴야네나의가진정파에
 진리를모르리라이정파는던지키벽초에일월정기로되여데르던봉원슈로서슈병십
 만을거너리고던상에회행할제호날이슈서거시니이느지극호보리라호고다라드러
 처거늘그요괴또호보장을드러막으며셔로쓰홀석혹전옥주호여점々물너물밖그로
 나오니행즈구름속에서숨었다가그요괴나음을보고경망호마음에참지못호여죄막
 티를두르고다라드러치려호니그요괴감히당치못호여물속으로뛰여들거날팔계의
 달아썩지저왕이몸슬필마온아잠간참아나오거든잡을거슬그리경망히너다라다
 라나게호니엇지또나을줄알니오행즈웃고이로티이증성아날을썩짓말나스승님
 의게가즈호고팔계를잇글고언덕에올나가니삼장이이로티너희날노호여슈고를만
 히호니가장안심치아니호여라팔계왕슈고야무삼슈고리잇가다만이요괴를잡지못
 호니언제나물을건너리잇고삼장왕그요괴죄죄너와엇더호더요팔계왕그요괴진짓
 적슈라거짓된호여물밖게나오니형이치려호다가못밋쳐물노뛰여드니일허바렸나
 이다삼장이얼골을썩고여왕그러면이물을언제야건너리요행즈월스승님은근심치
 마르쇼셔자연이쥬호일이잇스리이다오날은느졌스니놀흔바회에안져계시쇼셔
 로손이아모티라도가져를어더오리이다호고푸기에금바리를너가지고근두운에

을나스면을바라보니동다히로머지아니호곳에인가여럿이되거늘드티여구름에뛰
 여나려한집에가져를빈티안호로서호늘근한미나오다가행즈를보고놀나이로티요
 괴온다호고급히드러가거날행즈라드러가붓들고이로티나는요괴아니요동토티
 당황데어데성승삼장법사의데즈제던티성손오공행즈로야님으로셔々던々츩국티
 되음스의비불호고경가질너가더니스승이비곱파호기로죄를어드러왔노라호티
 그한미로호여왕네요괴아니요무엇이리오에서々던길이사천여리어날네엇지이곳
 에오리오행즈쇼왕로손은구름타무로삼십만리라도지척갓치단니기로이르렀노라
 한미그제야금바리를밧아가지고밥을가득담아주거날행즈가지고와스승의게드리
 니삼장이먹고왕밥은먹엇거니와이물을언제나건너가리오팔계왕형아이니근심말
 고형이신룡을너스승님을업고구름타고건너가면삼시간에아니건너가라행즈왕
 신선이말호티선가사람은리산을울작이미쳐즈남우씩는듯호고범골은홍진에뛰여
 나지못호니엇지늑신을공중에올니리오로손이온갓변화호기를던지키벽이후에
 짝호리업스나스승님을괴시고못가리오마는부쳐이로스디괴로운공부와슈고로운
 일을맛나만히겨거야능히범골을버셔나고도를일운다호니스승님은이르지말고우
 리들의슈고와고성을겨거야셔불득도호리라팔계가말을듯고이로티형의말이가장
 을로다호더라이르렀서로이며스승데즈물가에서즈고명일々죽이러나행즈팔계
 다려이로티네물속에드러가그놈을혀너오라호니팔계가로티형은티양마른티잇

고무삼일노날을물속에드려보느니라하느다행조달녀여왕녀이제는경망이구지아니
 할거시니녀괴있다가잡을거시미네드러가혀녀오면날보다열번차다하리라팔
 계씨이논말을듯고물에드러가니그요괴정히제쇼혈에서자다가물결이논쇼리를듯
 고눈을떠보니팔계정파를들고드러오니그요괴썩지되도다지놈이또무슴일노
 드러온다팔계정파를머무르고왕네이몸쓸요괴야두덩에나아가결우지안코엇지물
 속에서쓰호기만하느다그요괴물가에나지아니코다만이로되이몸쓸요괴놈아날을
 속여물가에아가거든잡으려하느다네착하거던다라느지말고물우혀서승부를결
 우조하고팔계로더부러썩지뜨뜨쓰호거날헛져요괴못히나오지아니물보고경망
 홀마음에참지못하여한시각에잡아오지못함을한하여스승다려왈스승님은예안
 조기다리쇼셔슈리참석쳐저놈을잡아오리이다하고근두쳐공중에뛰여올느껴려
 저느려오며그요괴를잡으려하니그요괴팔계와쓰호다가바람쇼리를듯고칩터보니
 헛조구름속으로셔쇠막대를충추며느려오거날급히물속에드러가니동적이고요호
 지라헛조허릴업셔팔계다려왈제우리지혜를알고언덕에오르지아니하니이를엇지
 하리요팔계와아마도나오지아니할거시니언제이물을건널고형의신통이거룩다하
 더니예와셔는착지못하도다행조와아직스승님을보고의론하조하팔계를다리고
 스승님을보고또못잡은곡절을말하니슴장이눈물을흘녀왕일이이러하니물을언
 제나건너리오행조와아못조룩잡아너리니스승님은근심치마르소서하고팔계다려

왕저요괴와쓰호지말고스승님을편이되셔잇스라니남히에가보살을청하여오리라
 팔계와보살은청하여무엇하려하느뇨행조와우리이러케하거보다보살님타시라보
 살이오시면조연도흔일이잇스리라팔계와형이가거던보살님덕분에오릉이도히단
 이드라하고전갈하이라행조근두쳐남히보타락가산으로가니던신이행조를보고
 왕이잔남이또무삼일노와는다행조와로손이보살님뵈오려와노라모든신령이보살
 제고와손오공이급호일이잇셔뵈오려와나이다보살이덕성을부르라하시니행조드
 러와절하거날보살이이로되네스승을보호치아니하고엇지와는뇨행조고와보살님
 덕분에스승님을무스하다리고조로장에가호도데를어드니법명이오릉이라드리고
 황룡령을넘어이제팔빅리뉴스하에이르니삼천리약슈라스승데조건널길이업셔
 할츠에또물속에호요괴잇셔무예가장놓호니오릉이물속에세번드러가쓰호다가이
 괴지못하고로손이또잡으려하니그거시도망함에특별이와보살님이구호심을바라
 느이다보살이이로스티잔남이범우착흔체하고스승을다리고셔련에가는길을
 이로지아니하엿도다행조와다만저놈을잡으려하여오릉이물속에서쓰호를썩이오이
 말은이르지아니하엿느이다보살왕이거슨요괴아니라하날에서권렴디장을봉하엿
 더니득죄하여그곳에귀양왔나니녀전일권하여당중의데조되여죄를속하라하엿스
 니제알면결단코귀슈하리라행조와그요괴이제쓰호에접하여물속에급히들고나지
 아니하니어니시절에스승을다리고약슈를건너리잇고보살이즉시해안을불너스미

안으로 서호호로를 너여 쥬며 왈이 호호를 가지고 오공과 혼가지로 류스하에서 오정을
 불너니 말을 전하고 분부하면 일정 귀순하야 당중의 데즈 될거시니 귀순후 오정의가
 진바아 흙디 골을 혼디 모화 구공을 정하야 그가 온디 그 호호를 띄오면 완연이 비되리
 니 디 중일형을 무스히 건너라 해안이 명을 밧아 호호를 가지고 행즈를 다리고 구름타고
 일광을 띄여 류스하에 오니 팔계 목탁인 줄알고 스승을 다리고 나가 절하고 례하니 해안
 이 승장의게 답례하고 팔계와 인스하고 팔계보살의 교령을 밧아 스문이 되어 도히서던
 으로 가니 은혜망극하야 이다행즈 왈아 직인스논고 만두고이 놀을어 서잡아니라 승장
 이 목탁다려 왈 존스엇지 멀니 오시뇨 행즈보살의 말과 목탁다려 온슈 말을 일으며 또
 요괴 일흠은 오정이니 데즈 될곡절과 또 혼발서서던에 경가 절너가는 말곳일넛든들슈
 고치아니하고 잘건너갈거슬 심히이달스와 이다삼장이이 말을듯고 목탁의게머리도
 와 왈복원 존스논우리 일형이 슈히 건너게하소서하니 목탁이 공중에 띄여 올라 운무중
 에서 물을향하야 웨여 왈오정은엇지서던에 경가 절너가는 스승께 귀순치아니하고 작
 란하논다 그요괴 형즈를 두려 물속에 있다가 소리를듯고 관음보살인가하야 깃뿔을이
 괴지 못하야 부월을 피치아니하고 물우히 띄여 올라 머리를디 미러보니 목탁과 핑즈잇
 거날우음을 먹음고 나가 례하고 왈보살님이 어디 계시뇨 디당중을기다리되 오지아
 니하기로 답답하도다 목탁왈우리보살님이 일즉너를 분부하야 당중의 데즈 되여서던
 으로 가라 하엿거늘 네엇지 귀순치아니하논다 수히네 목에메인아 흙디 골을너여 노화

구공을향하야 보살이 쥬신호로를 그속에 띄여 당중을 슈히 건너게하라 신명을 밧아 왈
 스니 슈히네스승께 귀순하야 오정왈경가 절너가는 디 중인 줄아 란든들엇지움작이리
 잇고 또 팔계를 쥬지져 왈저 짐성이 날과 쓰흠만하고 경가 절너간다는 말을아니하니
 이 무삼도리뇨 또 행즈다려이로되오것도 무례하야 나를잡으려만하고 경가 절너간단
 말을아니하니가 장미혹하고 우악 혼무리로다져 것들노한가지로 가지 못할노다 목탁
 왈두던에잇는이논제 팔계요여괴잇는니는 행즈니보살의 권으로 당중를스승삼아경
 가 절가느니네 동되라 무삼일노모진말하나뇨너를위하야 화호하케하리라 오정이그
 제야 누른옷을 입고보장을 들고 언덕에 띄여 올라 삼장의게 무릎을살고 절하야 왈스승
 님은 죄를스하쇼셔 팔계왈이놈이엇지 귀순치아니하고 말만치 례하논다 행즈왈고이
 치아니하라우리 일적경가 절너가는 말을아니하엿고 성명도이르지아니하엿스니
 엿지알니요삼장왈네정성으로 데즈되려하면니법명을 지으리라오정왈보살님이하
 물을가룻쳐성을스라하고법명을오정이라하엿스니다시법명을지을일이업거니
 와스승님교령을아니드르릿가삼장이오공다려왈오정이님의순중하니네게도르머
 리를짜그라오공이게도를가지고저머리를파랏게짜그니그데즈세히츠투로스승
 의게절하니진짓강악혼화상들일너라삼장이깃거혹오정이라도하며혹스화상이라
 도하더라목탁이오정다려왈슈히스승을건너라오정이아 흙디 골을버셔노호로업어
 물에 띄오고가온디 호호로를안치니완연흔비되거늘스승을청하야올니고좌편에오릉

이서고우편에오정이서고압히는오공이서고뒤에는빅마를잇그러슈유의언덕에다
 히니아흙디골이변하여구름이되어훗터지니간곳을모를나라목탄이홍호로를거두
 어가지고남히로가거날삼장이절하여스레하고세데즈를다리고서런디로々향하여
 나아가니라

○제이십이회 삼장불망본 스승시선심

어시에삼장의스승데즈류스하를떠나서런디로々향할식이씨는갑흔가을이라붉은
 님과누른풀이산상에즈옥하고기러기는남으로날고실술성은원외의심회를도와쳐
 량함이그음업더라하로는가더니일낙서산하고초야혼혹거늘삼장왕이제날이저
 물고사면을아모리들너보와도촌락이업스니엇지하리오행즈왕스승님말씀은아모
 절도모르시나이다출가흔사람이고초하고괴롭기도응당하거늘갑유리고한디셔누
 어즈미예송사라어디가편이실곳을어드리잇고팔배진부리를취여들고왈류스하를
 떠나무로부터놈흔디도오르며갑흔디도건너괴롭기첩々하하고멘거슨무거우
 니이늙은살진놈이건디지못하겠스니집이나어더밥이나비블니먹고편히쉬면쥬홀
 거슬인가를어들도리는아니하고스승님말씀을엇지막셔두르며억제하는다행즈왕
 너는미양고로장에잇셔즐길적을싱각하는다임의출가하여비블하고々초를겨그미
 예스여날엇지미양편안기를바라티심을너고은계집을스모하니가장패스심흔놈
 이로다팔배왕로데메고는행리를너는가비야이야는나로데날마다슈고하며

여가거늘너는스승님만평안이되셔가는고나행즈쇼왕이증성놈아모르는말々나로
 손이스승님만편이되셔가고너와스승은행리와말을치지하였스니만일티만곳이면
 큰덕로볼기나올일스름이라팔배왕몹슬부리를놀러말만하는다너난형이라하
 고무거온행리를흔번도메지아니하고저말이크고살진거시늙은화상만티오니행리
 나더부터가려하여형대의정이라하고용흔말하는것보지못하였노라행즈왕네져
 말을예스말만너기는다본디서행통왕의옥룡티조로서하날에득죄하여죽게되였다
 니관음보살이영쇼보전에발팔하여빅마를민드러거늘제구실도어렵거든네종노릇
 서지하라팔배왕룡은구름을지어니고바다흘뒤쳐거늘이말은완々이가니무슴착함
 이잇는나행즈왕네말의죄조를보라하고금지방드러룡마를저허니룡마저를칠가하
 여팔배말의로하여네굽을혀위여다라나별과번기갓치공중에서죄조를퍼니삼장이
 마상에안즈흔빅이상현하여눈이둥그러하고두손으로잡기를잡고겨우견디여가
 니웃이다미여지니흔밋친사람일너라가읍슨들과힘흔산곡을경각에지나한곳에이
 르러거름을긋치니삼장이그제야인스를쳐머리를드러보니만첩산중에흔초막이
 잇스되국화는서리를떨엿고송죽은동구를들녘스니가장쇼쇠하더라말을멈추고기
 다리더니행즈짜라와일오티스승님이떠리지신가하였더니다행하여이다삼장이디
 로왕몹슬잔납이경망야하마떠러져죽을번하였다행즈왕너타시아니라팔배말을
 썩지々니이놈을쳐죽여야가하니이다이러할제팔배행리를메고혈덕이며오거날

행조귀박휘를선어업지르니 팔계발명왈나느죄업스니 필마온을머리압루게하쇼서
삼장왈이왕지스니그만하여두고저괴촌장이잇스니편이쉬여가즈하거늘행조머리
를드러보니반공에잇는안기덥헛스니부처의괴운인줄알고감히누설치못하야다만
일오디잘곳을어덧스니깃거이다삼장이나아가보니문전이고요하거늘행조면저드
러가고저하니삼장이말녀왈남의집에그저드러가지말고스탐나오기를기다리지
하고침하에안조오리기다리되인적이업거늘참지못하야문안에드러가니삼간디청
에슈정렴을드리오고현판에슈상위라사였고디청가온디고흔칠상탁우희향로를
놋코좌우에교의여섯을놋코쳐석병을둘넋넋디괴이흔방물지외와각석화초를두로
버렸거늘구경하더니이욱고안흐로셔흔부인이아릿다온락도로문왈네엇던스탐이
완디감히과부의집에드러온다행조황망이답왈로손은동도되당황데어데흠치성승
삼장법스의데저제던디성손오공로야로셔스던에비불하고경가질나가는스승데저
스인이귀촌마을을지나오니로보살은일야드셔고감을청하노라로부인이소왈삼위
장로는어디잇는요청하라행조소리를놓히하야부르니삼장이데저다리고드러오니
부인이디청으로드리거늘팔계그부인을눈쏘와보니중년이되엿스되얼골이탁월하
고괴질이온화하며비단옷을넋고지분을잡잔다스렸스니석덕더욱아름다운지라팔
계고히이겨나아가절하고인스하니그부인이팔계의거동을보고그욱히웃더라스
승데저를청하야좌정후분득병풍뒤흐로셔흔초환이지분을빋넋고치의를설어황금

반에릭옥비를받치나와비단스미안호로셔섬々옥슈를녀여향다를부어삼장부러
츄레로드리니삼장이맛아먹고스레하니부인이분부하여지를슈히하야이바지하
하느니라삼장이스레왈로보살은놓흐신성이무엇이며다명은무엇이니잇고부인이
디왈이씨흔셔우화주요성은가씨요지아비성은막씨니도상부모하고도상의괴업이
누거만이로디불행하야아달이업고다만쌀이제히잇더니불행하야삼년전에망극흔
운을만나장부를여희고설어하더니금년에동제를맛고세간을보살펴줄스탐도업
스며어린쌀만다리고수습지못하야다른장부나엇고저하더니인연이중하야열위장
노를만나니세쌀노더부러하니식맛타살미엇다하노삼장이청파에눈을감고머리를
흔드러달지아니하니부인왈니집압히도이슴천석적이오받치또흔숨천날가리오우
마천여필이오우양과듯춘부지기슈오스면에집터와금은이무슈하고집에팔구년먹
을양식이족하고삼스년납을웃이싸였고로비는불가승슈니만일마음을도로혀이
집스회되면일성영화바으리니엇지슈고로히셔련의가느니갓호리오습장이더욱못
든는듯눈을감고잠잠하니부인이또이로디하나히마흔다섯살이오장녀진진은나히
스물이오초녀이이느나히십팔이오습녀연연은나히십육세라지우금출가치못하엿
스며겹하야시셔빅가를통달하야스리를아니진죽녀중근조라열위는희심하야로파
를기르고우리집가장을추지하야가장이되어금슈로몸을쓰고육식을염어하면엇지
고초이단이는디비하리오습장이듯고말마다어린아히회정에놀난듯정신을진정치

못하야 겠눈으로 팔계를 보니 팔계 부귀 할 말과 아릿다운 미식을 보고 마음에 깃거 참
아 견디지 못하여 두다리를 비스고 허리를 의오를며 두아귀로 춤을 출니다 가스승을 부
들고 왈스승님아 저 낭주의 말이 올흐니 헛스양치말고 디답하쇼셔 승장이 눈을 크게 뜨
고 두손으로 밀치며 썩저저 왈이 업축아 출가호사 람이 부귀와 미식에 동심하냐 만일
미식을 탐하면 아비 디디옥에 드러방 천첩이 지니 되고 초를 겨고나 오지 못하느니라 그
부인 왈 무슴이러 할니 잇스리 오미녀를 티하야 주야로 동락하며 호쥬성찬을 베풀며
고몸에 금슈능나를 닦아 빛는 말을 타고 화려히 단니며 두루산슈를 구경하여 저손이 만
당하고 영화를 누리면 엇지 불가함이 잇스리 오셔련이 예셔 슈만리니 헛도히요 괴의 밥
이 될지라 예잇슴이 엇더하뇨 승장 왈 부인이 인가 낙스를 이르니 우리는 출가호사 람이
라마음을 잡아 물욕의 념녀를 싣코 선당에 향을 피우고 요히 념불하여 몸을 도히하
여 셔련의 드러가 비불하고 경을 가져와 황상세봉명하고 영산에 도라가 존스되여 연티
에 올라가 세존의 설법을 듯고 천만 겁 지앙을 업시하며 인간욕심에 잠겨 디옥고 초를 겨
그리 오부인이 승장의 말을 듯고 썩저저 왈 나는 도흔 뜻으로 혼인코져 할거늘 이렇듯 견
집하니 장로는 님의 환속지 아니려 발원하엿거니와 데즈중우리가 장을 승으면 무던하
니너무고 집지 말나 승장이 그 성니 물보고 머리를 숙이고 제즈등에 하노양을 보려하
야 오공다려 왈 너는 중하나 할 두고 가라하니 네 뜻이 엇더하뇨 흥즈디 왈 나는 저 초로이
런고히 할 말을 듯도 보도 못하엿스니 무를 일이 아니 오스승님은 왕명을 밧즈와 계시니

머무르지 못하실지라 두아오다려 무러보소서 손은 스승을 피셔 셔련에 경가져 오려
하나이다 오룡이 참지 못하여 왈 나는 남하라는 디로 하리라 하니 또 오정다려 무르되 오
정답 왈 나는 관음보살의 권으로 스승 피셔 온지 두달이 넘엇스되 촌공도 갑지 못하엿
스니 죽어도 부귀와 미식에 변치 아니리니 스승님을 피시고 셔련에 가 비불하고 경가져
오려하나이다 부인이 이르오 왈 너 회일을 모르느도다 하고 문을 닫고 안으로 드러가아
도니 미러보지 아니하니 스승 데즈 밤게서 밥도 못어더 먹으미 팔계 망하여 왈 스승님
은너무 묘리 업시 구지 말고 언지 시 허락하여 밥이나 어더 먹고 잇고져 하느니라 하느만
두고 가면 죠 할거슬 말을 그릇하야 주인이 성니여 드러가니 우리 속절 업시 굶고 찬저리
에서 조고개 해온다 오정 왈 형이 실정 집스 회되고져 하나니 팔계 왈 너는 남의 뜻을 잘
안다 하느니 하느 디로 하리라 오공 왈 네 뜻이 그러하면 머리를 길너 환속하야 이 집스 회
되어 주식의 빠져 주야로 질기리니 네 집스 회 되면 로 손의 덕이니라 팔계 왈 너는 착호
체하고 잔말사나 이마음을 다 거두어가지고 로 데를 썩지스니 상담에 일잇스되 화상은
석중화상이라 석중아귀라하느니 도흔 일을가지고 그리 못치지 말나 이제 밥도 못먹고 썩
된 썩에서 설이 츄게 되엿스니 사람은 제 죄어니와 저 말이 무슴죄리 오로 데들이 곱을
뜨더 먹이리라 하고 말 곳비를 글너가지고 나가거늘 빙마는 령물이라 팔계의 심술을 저
괴하고가 만이 변하야 파괴되여 팔계를 썩라가니 팔계 문득 풀잇는 디로 아나가 고집
문으로 가니 부인이 세수를 다리고 한가히 국화를 보다가 팔계를 보고 웃고 마즈 왈 쇼장

로논어티로가는나팔계쌍과이고와나는이말를풀을먹이라가노라부인왈니쥬흔뜻으로네스승을스회숨으려하니뜻지아니흠은무슴도리요팔계왈니스승은당황대의명을받아서련으로가니군명을어그릇지못할거시오또흔용열무지하여가스도보숨히지못하고나는은것일을다잘하니스회되염직하니와다만니귀크고님이잠간길며씩뒤에렐이잇스니낭즈혐의로이녀길가하노라부인왈비록그러하나근실하고착하면가스에유익되다만니썰들이그를혐의할가하노라팔계왈썰님네다려무러보쇼셔스승은얼골이그와도용열하고동행들은성되고이하여하로도견되지못할거시오나는얼골이곱든못하오나근실하고순용하니가스를잘다스리고착하기로이를진딤론받치천석적이라도쇼부리지안코잘갈며가물면비를빌고여름에두면청풍을비러니고방식기울면경각의일위여고뒤간치기도가리삼부리지아니하니사회될진딤만스가다창성하니엇지착흔남즈아나리오부인왈이런지도잇슬진디단정코바리지아니할거시니도라가네스승님제의론하라팔계왈스승이부모아니시니무삼의론이잇스리오슈히성흔하즈하니부인왈썰과의론할거시니아직나이가라하고문을닷으니팔계깃거도라오거늘헿즈먼저나와본상을너여슈말를이르니삼장왈혈마그러하랴하더니팔계도라오거늘삼장왈말은얼마나먹이고왔느냐팔계왈먹임직흔초장이업셔그저오니아다헿즈왈먹일곳은업고말을잇글고섯슬곳은잇드나팔계발셔데일을안가하여고기를숙이고나을북혀반향이냐말을못하더니문득문

여논소리나며북은초롱한쌍과향로흔쌍이나아오며뒤에서부인이삼녀를다리고와왈진진이의연연은네화상세례하라하니삼녀차례로례하거날팔계눈을쏘아보니가는눈섭과맑은눈찌며옥갓흔양즈와버들갓흔허리며잉도갓흔님이아릿싸온봄빛을씩엿스니정정흔리도와요요흔과질이월궁선녀나린듯몸을잠잠움작이뒤편연이의이하니진진경국지색이러라오공은얼골을썰고스승도아른채아니하고도라안졌스리팔계는눈이썩러지게보며욕심을참지못하어나아가일오디량량은광흔전으로오시나닛가월궁으로셔나려오시니잇가흔디헿즈와스승은팔계를뛰이겨겨눈을홀기며안졌스니부인왈모다이리미미히구르시니너자제이아지못홀지라니스스로한잔술을먼저잡고네잔을부어보너여든스회되리잡으시오하고초환을불너한잔은부인이스스로잡고네잔을차례로스승에게안즌디나려권하니하나도잡아보지아니하되팔계왈각니다라드립더붓들고호로록마시니부인이감동하여삼백을권하고파자하니팔계헿즈다려왈상담에일오디쥬인뜻을어그릇지말나하니엇지하리오헿즈왈이흔인이무삼일의론이잇스리오발셔뒤문에서다정하엿스니쥬인스들쥬허하며네게들원망드르리오니스승목시쥬흔하여스승님은중미하되오늘이련은상길일이니흔셔납채도말고어셔성례하소서부인왈큰화상은살겁고스리를안다하고차환을불너저를도히하여디접하니헿즈팔계의귀를쓰러부인압혜와일오디밤이김헿스니신량을청하소서팔계거짓아니드러가는체하거늘헿즈왈우리다허락하엿거날거짓

스양은엇지미노팔계그제야깃거부인을싸라익실에드러가니금은너흔고와곡식싸
 혼고히무슈흔지라니당에드러가니부인왈그티얼골이하무셔우니절문아히들이쓸
 티만흔졸은싱각지안코일정죽기로써피하리니제설의적삼옷깃을너오거든하나
 혼갈희여입으면감히거스리지못하여빅년동슈하리라하고차환을불너진슈얼은
 적삼제홀너여주니팔계다닐고저하여한팔에둘식세고하나흔머니에뒤집어쓰고나
 니문득적삼이변하여노히되어천사동혀지엽흔남게다라두니팔계압흔을견디지
 못하여피사올더라삼장이자다가쳐여보니날이밝아거날두루살펴흔동안보니그런
 짐이며스람이엿거늘삼장이놀나왈이거시꿈이나헿즈티왈로손이쳐음부터부쳐
 에조환졸아랏스되감히누설치못하여스승님께고치못하였는이다삼장이치미러보
 니죽은나무엇히조희겉넋거늘스승으로하여곰나리와보니그글에헿였스되남희관
 음보살과문슈보현티스논니이제당중을시험하여보니삼인은마음이금석갓흐니가
 장아름답거니와다만오릉의헿실이갓치못하니근심되는지라신척하여다려마라하
 였더라헿즈스승을다리고김흔풀속으로드러가니팔계를자로써워빅길이나흔
 나무엇히네굽을동그렷케미여다랏거날팔계압흔을견디지못하여사름을살오라하
 거늘헿즈티왈시켜방님장가는편안이가게신가식각시는엇더하더노얼골은절색이
 어니와쇼견이살갑든가잠을깊히드러게시던가부귀흔집의풍뉴슈식의잠겨잇서멀
 니가는중을꿈에나싱각할쇼나빅가지로조롱하니팔계벗그럽고압흔을견디지못하

여빌거날헿즈왈장가드러스니오릉을제간니고가지흔디스승이말너왈형은고만벗
 처고글너노흐라헿즈웃고근두쳐잡아나려글너노흐니팔계헿즈의게스레하고왈너
 눈이며러스죄를져드러스니일후야그런일이잇스라헿즈보살의글을되니오릉이그
 제야보살이왔든졸알고더욱벗그러머리를숙여말을아니하거늘헿즈귀박휘를끄러
 스승세뵈디삼장이경계하여썩지조되동혀미고각별치죄하라흔디팔계돈슈왈주후
 논마음을다고조심하여스승님을평안이되서가리이다오공왕이놈을그만하여스쳐
 못하리라하고스승의행리를모도메이니팔계삼을흔니고민망하여흔더라

○제이십삼회 만슈산티선유고우 오장관헿즈절인삼

어시에삼장의스승데져셔호로가다가한곳에이르니놈흔되히압해가렷스니송죽이
 하날에다하거늘삼장이말을머무르고두루완경하니단풍나무는비단장을드리온듯
 만산에가득하고황국이란만하여향기를도향며맑은시늬의붉은안기자욱흔티미룩
 이쌍쌍이왕리하여청학박학은죽림간에서출추며영지란초는스면에즈욱하니이진
 짓별유던디요비인간이라삼장이심중에깃거하여점々나아갈시날이점점석양씩이
 되엿는지라원리이만슈산오장관안에흔도인이잇스니도호는진원즈라또흔괴이흔
 보비남기잇스니던디벽전에던디정괴와일월정화로되엿스니일흙은춘환단이
 오또일명은인삼과라삼천년만에넙과뚝이피여삼천년만에여름이여러또삼천년만
 에익으니합구천년만에먹는니모양이맛치아해가흔지라흔점을먹으면일만륙천년

을스나니그귀함이그왕모의반도와다르지아니하더라이적에디션을원서천존이청
 하여혼원도를강하려하더니디션이올나갈제데즈삼십륙인을다리고청풍명월만두
 고가니청풍의나혼일천삼십세오명월의나혼일천이십세라대션이올나가며분
 부하되도관을너희티만히취오지말고잘직히잇스라너고인이이리로올거시니마
 저인삼과를들만따먹여넷정을표하라도동왈감히못잡나니스부의고인이취시니잇
 고디션왈동도티당화데흠쳐어데성승삼장법스란화상이셔역련축국티되음스에비
 불하고경가질너가나니라도동왈공즈말오스디도갓지아니면셔로썩를아니하신
 다하여계시니우리는티을도동이어늘엇지그화상을티접하리잇고디션왈너히논아
 지못하리라이화상이본디셔가여리들져데즈금션즈라빅년전에너령산에갓슬제금
 션즈친히츠를부어쥬며날노더부러극진이스귀엿스니너엇지티접지아니리오또그
 데즈들도알거니와가장폐로오니부티잘티접하여변을너지말나청풍왈인삼과논본
 디션흔키로서저적의동산문을열적에티중이들을싸먹으니이제이십팔슈남앗스니
 슈잇는거슬엇지써히비하리잇고디션이쇼왈그데즈들이하용치못하니부티잇지말
 고아라티접하라하고구름타고가니라츠시삼장이두루구경하더니푸른티슈풀에
 빛는루각이은은이되거날삼장이오공다려왈네저창송록죽슈풀속을보논다히즈왈
 로손이보미도해거룩하니도관곳아니면일정절인가하노라삼장이말을치쳐나아가
 두루보니취죽단세는셔양의잠갓스니과연신션에곳이오삼문압해큰셔비섯스니사

엿스되만슈사복지오장관이라하엿거날삼장왈이속에일정신션이잇도다하고첫
 문을드러가니정히그음업논신션의집이라히즈왈로손이오빅년전에티료런궁홀제
 티상로군에궁에가보와도일적이런경기는보지못하엿더니이도스논천짓거룩홀도
 스로다팔계왈모르난말스나도덕이높흐니잇는줄을엇지알니오하고들져문을드러
 가니두도동이어나오거날보니얼골이영미하며의표탈속흔지라션동이허리를굽혀왈
 멀니맛지못하니죄를스하소서하고드러가니삼장이드러가보니전중문에죽즈를비
 단으로썩며드리오고런디라두즈를쓰고그안의황금향로와빅옥향합을버렸거날삼
 장이나아가분향하고비례흔후도동다려문왈숨청스데논위하지아니코런디만위함
 은엇지미노동즈소왈숨청스데논우리스부의벗이오지모지인은우리스부의후진이
 니엇지하리오형즈이말듯고업드리며웃거날팔계왈형이무삼일노져리웃논다히즈
 왈져바람논도동의말을듯고웃노라삼장이썩지져물니치고션동다려문왈사취어티
 가계시뇨도동왈스부를원시던존이청하여혼원도를강하시미가계시니이다히
 즈이말를듯고로함을참지못하여소리를질너썩지저티이밋천도동아미라궁은티을
 션군잇는곳이어늘엇지밋천거슬청하여가리요삼장이형즈의성년여무고히썩지즈
 물보고썩지져왈이거슨고요흔가온티면변을너려하니그무삼도리스오하고이로티
 출가흔스름은일향흔가지라무죄흔도동을엇지썩짓는다슈히사문박게가말을먹이
 라하고팔계와스승을불너왈너희는형리를직하고삼가요란치말나하니세데즈박그

로나가거날도동이삼장을청하여별처에안치고서로일카르며화상은진것용호스
 탐이로다우리스부일으시디데즈들이가장페롭다하시더니과연부리썬죽호홍악호
 거시스부인삼과를싸디접하라하시스나데즈들이변을닐가시부니인삼과를뵈지말
 즈호니청봉왕스부의교령을어그릇지못할거시나다시말하여그거동을보즈호고나
 아가삼장다려왕장되동도티당국으로셔々던의경가질너가시는삼장법스니잇가삼
 장왕과연그러하시니와선동은엇지아는요청봉와스부일으시기로아나이다호고명
 월노더부러의론하여왕스부의명을거역지못할지라인삼과를싸셔디접하라호고
 금겨즈를가지고화원에드러가남게올나싸나리치니명월이밧아가지고나와반에밧
 처삼장압헤이르러왕장로는이것을먹어히갈호소서삼장이눈을들어보니잔난아히
 들을반에담아다가긋코먹으라하시거날삼장이놀나얼골를썩고물너안즈며왕엇지
 아히를쥬며히갈호라하시니요청봉이이로티화상이진것죽안범티로다명월이소왕제
 모르니니일으리라호고삼장다려왕장로는고히너기지말나이것은선가의지극호보
 비과실이니일명은인삼과라먹으면장성불스호는니호나홀져셔보소서삼장이
 머리를흔드러왕거진말々나엇지는지슴스일이된아히를먹으라호는다도동이권하
 려다가못하여가지고저의방에도라와청봉이명월다려왕우리익숨아먹음이죽도다
 호고하나씩먹으며왕그화상이박복호도다이런요흔살과를물나보고먹지아니하시
 우리들이가장맛나게먹으리로다호고달게먹더니쥬방은본티벽이겨호였스미어음

이서로동호는지다팔계이말들듯고저의금겨즈를가지고가물너셔々로말하며먹
 는양을드르니일각의가셔못먹음을만망하여헛호오기만기다리더니이윽고헛호드
 러와뒤호로드러가거날팔계손을쳐부르니헛호쥬지져왕이놀아엇지이리잡되이구
 는요팔계왕형아니말을중간드러보라여괴션가보비잇스니알소나헛호왕엇진보비
 노팔계소왕내보지못호였스면가져다가쥬어도모르리라헛호왕이짐성놈아로손
 이당년에아니단난곳이업거날무엇을모르리오팔계왕아모리골빅변을단였셔도모
 로난거손못지안코쥬짓기만호는다넷말에호였스되성인도불치하문이라호였스니
 네인삼과란말을드렸는나헛호놀나왕일직보지못호였거니와어려슬제드르니인삼
 과일명은초환단이니먹으면장성불스호다하시더니어디잇는요팔계왕이집산에잇는
 니그도동들이싸다가스승님제드르니스승님이놀나보시고잔난아히라하시니동즈
 셔로먹으며스승님을우스니다만형오기만기다리노라이제우리도적호여맛보미엇
 더호노헛호왕가장쉬우니너가싸오마호고몸을두루혀급히달거날팔계왕이말을드
 르라그동즈의말을드르니금겨즈로싼다호고방에거렸스니묘리업시무단이도적호
 다가씩오면못호리라헛호왕그무엇이어려우리오호고변하여파리되어드러가니
 두동즈스승을차디접호려드러가고업거날헛호보니금겨즈를연적금으로민드렸스
 니길이두즈는호고뜻이갈고리갓고뜻히구명뿔어청스신을호였거날헛호도적호여
 가지고화원에이르니루각이참치호고정쇄호못가에누른국화와각식초복이며붉은

단풍은 고흔 빗흘 자랑 할 거늘 드러가니 과연 인삼과 남기섯 거 날 보니 놀기 천천이나
 고 몸 피 열아 흠아 람이나 하고 푸른 님히 덥혔스니 인삼과 드문 / 열 벗 거 날 흥지 처다
 라 하나 흘싸 나 리치고 집으려 나려 오니 아 못 것도 열 거 날 고이 허너 겨 왓 이 화원도 지 신
 이 못도 적히 가 개 호도 다 하고 진언을 염하니 도지 신이나 와 레 호고 왓 엿던 당 돌 혼 화상
 이 완티 감히 선가에 의 작란 호는 다 흥지 왓 님 궁에 티 료 할 제 날도 금치 못 호 엿 거 든
 너 회 종 선 선들이 야 님 방 귀 만 치는 녀이라 인삼과 하나 흘싸 먹으면 그 무슴 죄 완티 겨우
 싹 거 슬 감 초는 나 님 하 날도 두려 아니 호나 니 네 죽고 저 호는 다 도지 신이 이 로 티 이 거 손
 선가 보 비라 복이 적으면 못 엿는 다 호라 흥지 성 님 여 쇠 막 티 로 번 득 여 왓 금 시로 짜 나
 린 거 시 업스니 감 초지 아니 호 엿스면 어 티로 갓 스리 오 슈히 님 여 오라 도지 신 왓 티 성 이
 그 르 쇼 이 다 신을 의 심 호는 도다 저 보 비는 신 선 의 물 건 이니 쇼 신은 귀 선이라 엿 지 감
 히 상 선 의 지 극 호 보 비를 도적 호 여 먹 을 의 스를 님 여 더 욱 티 성 이 천 히 금 지 방 으 로 짜 시
 는 거 슬 쇼 신 이 감 초 고 나 종 을 엿 지 호 리 잇 고 흥 지 왓 네 말 갓 호 면 인삼 과 어 티로 갓 고 도
 디 신 왓 이 인삼 과 남 무 가 삼 천 년 만 에 싹 이 피 고 결 실 호 지 삼 천 년 만 에 익 는 고 로 선 가 에
 지 극 호 보 비 오 제 일 과 이 호 거 시 금 이니 앓 가 티 성 이 금 지 방 으 로 짜 스 디 그 보 비 를 허 질
 가 호 는 이 다 흥 지 왓 그 러며 무 엿 으 로 짜 는 고 도 디 신 왓 그 보 비 를 짜 라 호 면 겨 조 로 짜 서
 목 반 에 담 고 슈 건 으 로 덥 혀 야 성 호 개 잇 는 니 만 일 반 에 오 리 두 면 또 목 과 를 쓰 여 마 르 나
 니 비 록 먹 어 도 효험 이 업스니 만 일 두 라 호 면 조 과 의 담 아 두 는 니 다 쇠 로 치 면 오 목 호

거늘 이 새 혼 쇠 막 티 와 돌도 구 드니 가 장 고 히 호도 다 호고 한 게 교 를 님 여 다시 올나 옷을
 버셔 바 리 고 제 흘 새 품 에 품 고 가 만 이 도 라 와 금 겨 조 는 도 로 결 고 주 방 으 로 도 라 오 니 팔
 게 가 마 니 오 정 을 부 르 되 흥 지 왓 오 정 은 이 것 을 아 는 다 호 며 품 으 로 서 인삼 과 를 님 여 노
 호 니 오 정 왓 인삼 과 가 아 님 가 오 공 왓 네 어 티 가 보 왓 는 다 오 정 왓 먹 어 보 든 못 호 엿 거
 니 와 너 전 일 권 렬 티 장 이 되 엿 슬 제 반 도 회 가 나 제 선 이 온 갓 보 비 를 드 릴 제 보 왓 스 나
 먹 든 못 호 엿 스 나 형 아 조 금 맛 보 여 라 흥 지 난 화 먹 을 서 흥 지 와 스 승 은 천 사 이 먹 으 미 겨
 오 반 은 먹 으 미 팔 게 는 본 티 숨 큰 놨 이 라 먹 고 저 호 는 초 에 긴 부 리 를 버 령 경 각 에 다 먹 고
 이 에 스 승 다 려 왓 그 맛 이 엿 더 호 노 나 는 반 가 온 김 에 더 려 / 먹 엿 스니 맛 도 모 르 미 남
 은 거 슬 쇼 금 더 주 어 든 마 시 나 보 조 흥 지 이 로 티 겨 우 어 든 거 슬 제 먹 을 목 앓 치 를 다 먹 고
 남 의 먹 는 거 슬 탐 호 여 더 달 나 호 는 나 호 고 주 먹 으 로 귀 통 이 를 나 라 나 개 치 니 팔 게 손 으
 로 부 뵈 거 날 흥 지 도 금 남 겨 주 니 밧 아 먹 으 며 왓 과 연 맛 이 신 과 호 다 호 고 절 기 거 날 잇
 세 청 풍 이 방 게 혼 조 안 족 드 니 드 르 미 주 방 에 서 증 사 거 려 맛 이 좃 타 흠 을 듯 고 의 심 호 여
 가 마 니 귀 를 기 우 려 자 제 히 드 르 니 인삼 과 를 짜 다 가 제 히 서 먹 으 며 말 호 는 지 라 티 경 호
 여 금 히 명 월 을 불 니 이 런 말 을 호 고 한 가 지 로 황 망 이 화 원 에 드 러 가 보 니 화 원 문 이 크 게
 열 니 고 인삼 과 님 히 떠 려 족 스 며 인삼 과 너 히 업 거 날 청 풍 명 월 이 놀 나 며 의 호 호 고 정
 히 민 망 호 여 말 호 더 니 도 지 신 이 나 와 나 사 치 일 으 거 날 두 동 조 더 욱 호 호 여 왓 우리 가
 저 스 승 증 을 부 질 조 호 고 도 라 와 삼 장 을 보 고 썩 지 저 왓 이 머 리 뭉 뭉 씩 화 상 아 부 처 님 의

경계를 드렸거 날었지도 적절하는 다고 고무슈히 육하니 삼장왕무삼일노이 리슈육하
 나요청풍알네인삼과를슈니아하라고아 이덕더니 데즈를노화인삼과네홀싸다 먹
 었스니 이아니도적이냐이제는우리의게죽을죄를어덧스니 어이하리오삼장왕인삼
 과란말이무슨말인고명월왕우리싸다슈니아하라며다하더니이제는얼골도모
 르노라영절시럽게떨치는다삼장이밍제하여알아미라불아빈승은모르나이다한번
 보와도무셔위하엿거든엇지참아중으로서도적질하리요청풍알네비록물나도데즈
 들이몹쓸슈단을부려도적질하엿스되불너못도아니하는다명월왕네도적질할시분
 명하너우리스부도라오시면너희를살우리라삼장왕이아비디지옥에너홀놈들노하
 여이런변을맛났다돈이잇슨들어다가스셔물니오명월이디질왕이몹쓸놈아네데즈
 들이도적하여먹으며셔로말하거날니즈셔히드렸노라하더라차시명월이디질왕이
 몹쓸놈아네데자들이도적하야먹으며셔로말하거날니즈셔이들렀스니한번말명만
 하고데자들을불너못도안이라는다삼장이디로하여급히소리질너데자를부르니스
 승이형자다려왈앗가두동지소리질너스승님과말하더니지금불으시너우리도적하
 거시발각이되엿는가시부다형자왕이도또흔불과음식이여날무숨그리덕스리요만
 일이일노인하여스승님을슈육하거던도동을짓쳐죽이리라팔계왕은갓일을형을미
 덧스니똥을잘방비하라고일시에몹을일으혀스승의게나아가니라

서유귀이권종

大正二年十月七日 初版發行
 大正十年十月三十日 印刷
 大正十年十一月五日 再版發行

(西遊記第二卷)
 (實價金三十錢)

編輯者 朴健會
 京 城 府 長 沙 洞 五 十 一 番 地

印刷者 金重煥
 京 城 府 公 平 洞 五 十 五 番 地

印刷所 大東印刷株式會社
 京 城 府 蓬 萊 町 一 丁 目 八 十 八 番 地

發行所 博文書館
 振替口座京城二〇二三番



不許複製

